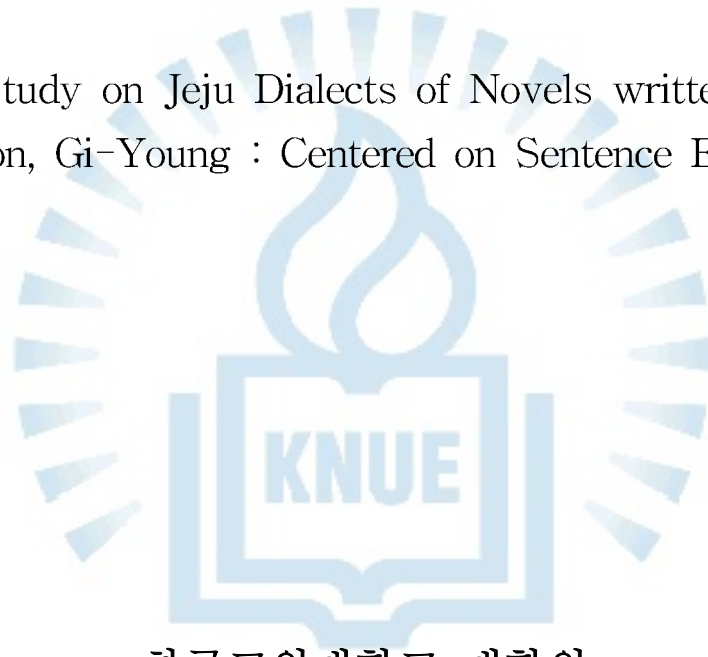


석사학위논문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제주방언 양상  
- 종결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Jeju Dialects of Novels written by  
Hyeon, Gi-Young : Centered on Sentence Ending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정 수 빈

2012年 2月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제주방언 양상  
- 종결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Jeju Dialects of Novels written by  
Hyeon, Gi-Young : Centered on Sentence Ending



지도교수 성낙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정수빈

2012年 2月

정수빈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2年 2月

# 차 례

논문요약 .....	iii
<b>1. 서론 .....</b>	<b>1</b>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1.2. 연구사 및 최근 연구 동향 .....	5
1.3. 연구 범위 및 방법 .....	11
<b>2.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제주방언 종결형 분석 .....</b>	<b>13</b>
2.1. 존대 표현 .....	14
2.1.1. 서술법 .....	14
2.1.2. 의문법 .....	21
2.1.3. 명령법 .....	28
2.1.4. 청유법 .....	31
2.2. 평대 표현 .....	32
2.2.1. 서술법 .....	32
2.2.2. 의문법 .....	38
2.2.3. 명령법 .....	44
2.2.4. 청유법 .....	45
2.3. 하대 표현 .....	46
2.3.1. 서술법 .....	46
2.3.2. 의문법 .....	52
2.3.3. 명령법 .....	57
2.3.4. 청유법 .....	59
<b>3. 결론 .....</b>	<b>61</b>
<b>&lt;참고문헌&gt; .....</b>	<b>65</b>
<b>&lt;ABSTRACT&gt; .....</b>	<b>72</b>

## [표] 차례

<표 1> 존대 서술법 [-우다]의 출현 수 .....	15
<표 2> 존대 서술법 [-네다]의 출현 수 .....	18
<표 3> 존대 의문법 [-우짜]의 출현 수 .....	23
<표 4> 존대 의문법 [-네까]의 출현 수 .....	26
<표 5> 존대 의문법 [-네가]의 출현 수 .....	27
<표 6> 존대 명령법 [-서]의 출현 수 .....	30
<표 7> 존대 청유법 [-시다]의 출현 수 .....	31
<표 8> 평대 서술법 [-아]의 출현 수 .....	34
<표 9> 평대 서술법 [-쥬]의 출현 수 .....	37
<표 10> 평대 의문법 [-가]의 출현 수 .....	40
<표 11> 평대 의문법 [-고]의 출현 수 .....	43
<표 12> 평대 명령법 [-아]의 출현 수 .....	45
<표 13> 평대 청유법 [-아]의 출현 수 .....	46
<표 14> 하대 서술법 [-저]의 출현 수 .....	49
<표 15> 하대 서술법 [-라]의 출현 수 .....	52
<표 16> 하대 의문법 [-냐]의 출현 수 .....	56
<표 17> 하대 의문법 [-리]의 출현 수 .....	57
<표 18> 하대 명령법 [-라]의 출현 수 .....	59
<표 19> 하대 청유법 [-자]의 출현 수 .....	60
<표 20> 현기영 소설 종결형의 출현 수 .....	62

## 논문 요약

###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제주방언 양상

#### - 종결법을 중심으로 -

정 수 빈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성낙수)

하나의 개별 언어 테두리 내에서는 음운·형태·통사·의미적 측면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방언’이라고 부른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방언은 지역 방언만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방언은 표준어보다 질이 떨어지는 언어라 생각하여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방언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언어학적인 연구 가치가 표준어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언어학자들의 방언 연구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으며 최근에는 시와 소설에 등장하는 방언 연구에까지 범위를 넓혔다. 특히 소설에 등장하는 방언 연구는 작품 자체를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편적 상황 설정에서의 제한된 방언 모습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발화되는 방언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많은 문학 방언들의 연구가 있었지만 유독 제주 방언과 문학 간의 이

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 소위 '제주문학'이라고 하는 작품들의 주제가 '제주4·3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때 제주방언과 소설과의 관계는 다른 지역 방언과 소설의 관계 보다 더 긴밀하게 맞물려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방언을 사용한 소설 작품들은 195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등장하였다. 이 중에서도 '현기영'은 제주도만의 특수한 배경을 문학적 뿌리로 삼으며 작품 활동을 하는 인물이다. 제주 본토 출신의 작가로써 제주방언을 활용해 작품의 인물과 배경설정을 연출한다는 점에 주시하면, 현기영 소설 속에 나타나는 제주방언의 양상에 대한 고찰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기영의 작품들 중 제주 방언이 사용된 장편 「지상에 손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과 단편 「순이 삼촌」, 「해룡이야기」, 「길」, 「잃어버린 시절」, 「귀환선」, 「목마른 신들」, 「거룩한 생애」, 「도령마루 까마귀」, 「아스팔트」를 주로 대화문의 종결법을 중심으로 존대 표현, 평대 표현, 하대 표현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서 다시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살펴본 바 첫째, 현기영 소설에서 [+높임]의 자질을 가진 존대 표현은 서술법에는 [-우다], [-ㄱ네다], 의문법에는 [-우짜], [-ㄱ네까], [-ㄱ데가], 명령법에는 [-ㄱ서], 청유법에는 [-ㄱ시다]가 있었다. [-우다]종결형은 [+높임]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현기영 소설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형태로 작품 내에서 제주방언의 특징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었다. [-ㄱ네다]종결형 역시 [+높임]이나 [-우다]형보다 격식을 갖춘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문법 중 [+높임]의 자질을 가진[-짜]종결형은 /-까/, /-과/등의 변이형태로도 많이 실현되며 다른 의문 종결형에 비해 두드러진 빈도수를 보였다. 이 종결형은 [-우-], [-리-], [-네-], [-데-]와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데, 소설에서는 [-우짜], [-ㄱ네까], [-ㄱ데가]의 정해진 형태로만 보였다. [-우짜]는 비격식적 표현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ㄱ네까]는 격식있는 표현으로 연설할 때, 신께 제를 올릴 때 주로 사용되었다. [-ㄱ데가]는 '회상'이나 '추억'의 의미를 지닌다.

명령법에서 [+높임]의 자질을 가진 [-서]는 [-ㄱ-]을 앞세운 형태에서만 명령의 기능을 수행했다. 원래 알려진 제주방언의 형태와는 달리 동작의 주체를 높이는 [-시-]형태소가 사용된 경우가 종종 보이기도 했다. 이는 현재 제주방언의 젊은 화자들의 현실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청유법에서는 [-ㄱ시다]가 있었는데, 제주방언의 고유 표현이 아니라 다른 방언에서 유입된 듯이 보인다.

둘째, 평대 표현은 [±높임]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가 높임과 낮춤의 격식을 차리지 않을 만큼 친밀할 때 쓰인다. 제주방언 평대 표현의 서술법으로 현기영 소설에서는 주로 [-아]종결형과 [-쥬]종결형이 쓰였다. [-아]는 음운론적 조건으로 나타나는 /-어/, /-여/, 등의 변이형이 있는데 소설 내에서는 주로 /-여/가 사용되었다. [-쥬]종결형은 [±높임]의 자질을 보였고, 비격식적인 표현이다. 화자가 청자보다 어릴 경우엔 [-ㅁ쥬]의 형태로 실현되기도 했다. 수의적인 이형태로 [-쥬]가 보인다.

의문법으로는 주로 [-가]와 [-고]종결형이 보인다. 종결어미 [-고]와 [-가]는 모두 특별한 높임이나 낮춤의 의미 없이 편안한 관계에서 쓰이는 것이다. [-가]가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에 모두 쓰인다면, [-고]형은 설명의문문에만 쓰였다.

명령법과 청유법에서는 모두 [-아]형이 있었다.

셋째, 하대 표현은 청자의 자질이 [-높임]일 때 쓰는 표현이다. 현기영의 소설의 서술법에서는 주로 [-저]형과 [-라]형이 사용된다. [-저]종결형은 [-높임]이며, /-아시-/ , /-암시-/ 등과 같은 제주방언의 시상선어말어미와 함께 나타나 [-우다]와 함께 제주 방언의 특성을 부각했다. [-라]는 화자의 선언이나 확신에 찬 단언을 할 때 주로 [-이라]와 [-거라]로 나타났다.

의문법에서는 [-냐]와 [-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높임] 자질을 가진 [-냐]종결형의 변이형태인 /-니/도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항상 의문사를 동반한 채로만 보였으며 ‘어디 감시니?’, ‘어디이시니’와 같이 제주 방언의 /-아시-/ , /-암시-/와 결합되었을 때에만 나타났다. [-리]는 주로 자문자답할 때 많이 보인다.

명령법에서 보이는 [-라]와 청유법의 [-자]는 소설 내에서 제주방언만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상으로 현기영 소설의 제주방언 특징을 언어학적인 시각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다소 논의가 부족하고 허술한 점이 많았으나, 제주방언을 이해하데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논의를 마친다.

**핵심어 : 제주방언, 종결법, 종지법, 상대높임법, 현기영, 문학방언.**

※ 이 논문은 2012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하나의 개별 언어는 시간의 흐름이나 지역, 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한 언어 테두리 내에서는 음운·형태·통사·의미적 측면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방언'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대개 방언을 크게 사용되는 지역에 따라 나누거나 사회계층을 기준으로 나눈다. 보통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에 언어적 차이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흔히 방언을 지칭할 때에는 지역 방언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방언도 모두 지역 방언만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방언은 표준어보다 질이 떨어지는 언어라 생각하여 비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별 방언은 모두 국어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선, 방언은 우리말의 고어형(古語形)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어의 어휘 및 음운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 현재의 문법 규칙 중에서 공식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통시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때 문법 규칙들을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각 지역의 방언형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 방언은 한정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그곳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즉 그들만의 특유한 정서와 사상, 문화 등을 언어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정서적인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낀다. 방언의 상대적 개념 혹은 상위개념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표준어'가 사실은 자연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언어학적인 연구 가치는 방언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1950년대 국어학자들은 꾸준히 방언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를 심도 있게 이어나가고 있다. 국어 방언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해당 지역에 조사자가 직접 가서 제보자를 선정한 후, 여러 방언형을 수집하는 현지조사 방법으로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였다. 이 때 방언의 자료 조사자이면서 연구자이기도 한 방언학자들은 전형적으로 방언 조사 항목이 기록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제보자에게 목표 방언형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이러한 방언 조사는 방언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이나 환경적인 측면을 파악하기엔 부족한 자료를 제공할 확률이 크며, 또한 섬세한 의미의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술 발화'라는 방언 조사 방법이 제시되기도 한다. '구술 발화'는 한 사람의 제보자에게 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언어를 이끌어내므로 비교적 신뢰성 있는 방언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구술 발화'를 통해 얻은 방언자료는 비체계적이며 한 사람의 발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언형을 얻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제주 방언 같이 방언만의 특이성이 도드라진 경우에는 조사자가 능숙한 연구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직관이나 지식에만 의존하여 방언 자료를 분석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자칫 잘못된 방언 분석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다분하다. 더욱이 현대에 와서는 학교 교육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온전한 토박이 방언을 사용하는 제보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방언 연구에서 이러한 '현지조사'나 개인의 '구술발화'를 통한 방언 자료 수집의 한계점을 얼마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것이 바로 문학 작품 내에 나타난 방언자료이다. 그동안 문학과 방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문학이 주가 되어 방언이 소설 작품 속에서, 또는 시 작품 속에서 어떠한 문학적 장치로써 역할을 하는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학 작품 내의 방언은 단순한 문학 장치 이상의 기능을 한다.

방언의 여러 특징 중에서도 방언이 그 지역만의 특유한 정서와 사상 등을 담 아낼 수 있다는 점은 문학의 현실성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장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학 작품, 특히 소설을 쓰는 작가는 작품 안에 등장하는 배경을 강조함과 더불어 현실감을 더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는 독특한 시적 효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특정 방언을 선택한다. 그래서 작품 속에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텍스트의 해석이 어려울뿐더러 자칫 작중인물들의 대화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하거나 시의 전체적인 정서를 파악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문학 내의 방언 연구에 있어서 주목해야할 것은 소설에 등장하는 방언들이다. 작가에 의해 세밀하게 사용된 소설 속 방언들은 기존의 단편적 상황 설정에 제한된 방언의 모습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발화되는 방언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게 하며, 비교적 체계적인 언어 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소설 속의 방언은 실제 세계에서 그 방언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한다. 비록 작가가 문학작품 속에서 사용하는 방언들이 현실에서 쓰이는 방언 형태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언이 지닌 영향력 자체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다. 작가가 소설 내에서 사용하는 방언은 대부분 자신이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의 해당 방언 독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형태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의 방언 사용이 소설의 현실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무턱대고 현실에서 쓰이지 않는 방언형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와 작가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뿐이다. 즉 문학 작품 속 방언은 당대의 실제 방언형의 표본이 될 수 있으므로 문학 작품에 반영된 지역 방언을 면밀하게 살펴 방언 연구의 자료로 다룰 필요가 있다 (김태엽, 2004).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본다면 소설에 쓰이는 방언에 대한 연구가 문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국어학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의 논의를 보면 주로 시에서는 평안도 방언과 백석, 충북 방언과 정지용, 경북 방언과 목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소설에서는 전라도 방언과 채만식, 충남방언과 이문구, 경남방언과 박경리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중에는 문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도 있었지만 방언에 초

점을 맞춘 연구들도 다수 있었다. 강희숙(2004)에서는 백석의 시를 언어자료로 삼아 서북방언과 구개음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양연희(2009)는 목월 시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전반을 살폈으며, 한영목(2003, 2005, 2008)에서는 이문구의 소설에 나타난 충남방언의 움라우트와 모음 현상, 조사 등을 연구했다.

그러나 유독 문학 작품 속 제주 방언의 이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 방언을 문학적 장치로 보는 문학 중심 연구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방언 연구의 언어자료로 보는 언어학 중심 연구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제주방언과 소설의 관계가 다른 지역 방언과 소설의 관계보다 더 긴밀하게 맞물려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아쉬운 점이다. 제주방언은 제주문학의 주제를 살려내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제주적, 향토적 요소가 있는 작품'인 제주문학은 제주의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상당히 많은데, 김영화(1995)에 따르면 42편의 소설 중 35편이 '제주 4·3'사건과 관련이 있을 만큼 제주 문학은 '제주 4·3'이라는 주제에 집중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만의 역사적 비극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4·3'을 주제로 한 소설에서의 제주방언은 해당 소설의 의미 작용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치는 문학적 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표준어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희미해져가는 제주방언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 방언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소설가가 사용한 방언형은 그 시대의 방언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학 속의 제주 방언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모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 방언이 쓰인 소설 작품들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양이긴 하지만 1950년대 이후부터 현길인, 오성찬, 현기영 등 제주도 본토 출신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에 의하여 꾸준히 제주방언이 등장하는 소설들이 출판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현기영은 1970년대에 등단하여 1978년에 제주도 4·3사건을 소재로 한 「순이삼촌」을 시작으로 「바람을 타는 섬」(1989), 「마지막 테우리」(1994)에 이어 최근에는 「지상의 순가락 하나」(1999)에 이르기까지 제주방언

을 이용한 소설작품들을 비교적 꾸준히 써온 점이 주목된다. 또한 현기영 소설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소설 모태는 제주4·3 항쟁이라고 밝혔을 만큼 그의 소설은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배경에 문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현기영, 1993). 소설 작품에서 사용되는 방언이 독특한 인물의 성격과 향토성 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점에 주시해 볼 때 현기영 소설 속에 나타나는 제주방언의 양상에 대한 고찰은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기영 소설에 나타나는 제주방언의 여러 형태·음운·어휘적 특성 중에서도 문장종결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는 현기영 소설에서 제주방언의 특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가 문장종결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기영 소설에 나타나는 제주방언의 여러 종결형들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작품에서 사용된 제주방언에 분석을 시도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2. 연구사 및 최근 연구 동향

최근 문학 작품을 방언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문학과 언어학이라는 서로 다른 두 학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학제 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발표된 문학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텍스트에 사용된 지역 방언의 특징에 대한 분석하거나 문학적 표현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학에 대한 방언의 접근은 크게 시와 소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시의 경우엔 특정 시인의 작품 속에 쓰인 방언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방언의 시적 효과를 설명하고, 그와 더불어 그 시인의 시세계를 해명한다. 소설의 경우엔 한 소설 작품을 이해하는 단서로서 방언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는 현기영의 소설에 드러난 제주방언의 종결법을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소설에 반영된 방언사용 연구를 중점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제주방언에 대한 것이므로 그동안 이루어진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제주방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기영 소설 속에 쓰인 제주방언을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기영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제주 방언을 소설 내의 지역적 배경, 작중인물 간의 관련성을 참고로 하여 분석한다면 방언의 세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소설에 쓰인 방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 전 문학작품과 방언 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을 꼽으면, 김홍수(1985), 김용직(1996), 김완진(1996), 김승중(1998), 이기문 외(2001), 이태영(2004), 윤석민(2006)이 있다.

김홍수(1985)는 소설에서 현실을 묘사하는 데 일상 언어로서의 방언이 어떠한 문체적 특징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주목했다. 김용직(1996)에서는 고전문학 시기에서 시작하여 19세기 말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른 한국문학과 방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시에서의 방언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소월과 백석에 주목했다.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김소월은 향토 정조를 성공적으로 노래하고, 백석은 모더니즘의 바탕 위에 진한 토속성을 가지는 독특한 풍모를 획득했다고 보았다. 김완진(1996)은 문학과 언어, 특히 방언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두 학문을 연결하여 주는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할 수 있다. 김승중(1998)에서는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소설의 리얼리티에 주목하였다. 특히 송기숙의 소설 「녹두장군」 속의 전라도 방언이 작품 전체의 상황을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여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적절하고 현실성 있게 표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이기문(2001) 역시 소설과 방언, 시와 방언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대표적 연구들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태영(2004)은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문학적 효과에 주목했다. 문학작품 속 방언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구어체의 작품 발달을 촉진시키며 지역 정체성을 획득한다고 했다. 또한 고전소설이나 판소리 소설 등

에서 볼 수 있듯이 익숙한 방언 문장을 활용하여 문학의 해학성을 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위 연구들은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언어, 특히 방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즉 문학과 언어학에 대한 연구는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 연구를 위해서는 국어학적 시각이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문학 장치로서 방언을 보는, 즉 문학 중심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태엽(2004, 2005, 2006<sup>ㄱ</sup>, 2006<sup>ㄴ</sup>, 2008)에서는 꾸준히 소설에 나타난 경북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했는데, 이는 문학 속 방언을 하나의 언어자료로 삼은 언어학 중심의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김태엽은 언어 연구에 있어서 통시적인 연구가 부족함을 문제로 삼고 그 해결책을 문학 작품에서 찾았다. 즉 문학 작품을 하나의 문헌 자료로 삼아 그 속에 기록된 방언을 연구함으로써 당대의 방언 형태를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김태엽은 주로 경북방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전개했다. 김태엽(2004, 2005)에서는 현진건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에 집중했다. 소설 속 경북방언의 어휘소들을 추려내어 그 형태와 조어 방식 등을 현대의 경북 방언과 비교해가며 통시적 방언 연구를 하고자 했다. 이어 김태엽(2006<sup>ㄱ</sup>)에서도 경북방언의 통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김동리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의 문법 형태를 분석했다. 역시 소설에 쓰인 경북방언형을 검토하고, 조사와 어미 및 시제표현, 부정표현 등의 몇 가지 문법 현상들을 중심으로 김동리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의 문법 형태의 변화 양상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엽(2008)은 백신애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의 문법 형태에 대해 통시적 기술을 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이태영(1997), 위평량(2002), 한영목(2003), 정홍섭(2010)에서도 개별 소설, 혹은 개별 작가와 방언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태영(1997)은 채만식의 「천하태평춘」에서 쓰인 방언이 작품 안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고찰했다. 즉, 어학적인 관점에서 소설 속에서 사용된 방언의 형태, 통사, 어휘, 문체에 관한 것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방언 사용이 작중인물

의 설정과 성격묘사, 풍자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것이다. 위평량(2002)은 소설 「토지」에서 실현되는 방언의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 경남방언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문법형태적인 측면과 어휘적 측면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한영목(2003)에서는 이문구 소설에 쓰인 충남방언에 대하여 음운, 통사, 어휘를 분석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를 통해 이문구의 소설은 방언을 포함한 독특한 문체를 통해 독자에게 낯섦과 향토적 정서를 동시에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정홍섭(2010)의 경우엔 작품의 문학적 특질 형성을 면밀히 따지기 위해선 소설 속에 담긴 언어를 제대로 검토해야함을 내세우면서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방언과 북한어에 대해 고찰했다. 작품에 쓰인 의미가 불명료한 채로 남아 있는 몇몇 방언 어휘들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다음은 제주방언에 대한 논의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들은 제주방언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들로, 통사적 측면의 연구, 어휘적 측면의 연구뿐만 아니라 제주방언 특유의 개별적인 문법 형태소에 주목한 논의들도 많은 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제주방언의 모음체계나 특정 음가에 대한 음향음성학적인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제주방언의 통사적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성낙수(1975ㄴ, 1980, 1983ㄱ, 1983ㄴ)가 있다. 이 논의들에서는 특히 제주방언의 ‘풀이씨’의 발화상황에 따른 형태적 특성, 문법적 의미 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볼 수 있고, 성낙수(1982)에서는 제주도 방언의 접속사 중에서도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그 통사적 의미를 고찰했다.

문순덕(1997ㄱ, 1997ㄴ, 1998, 1999)에서는 제주방언의 부정표현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여기에서는 제주방언의 부정표현인 ‘말다’와 ‘엇다’, ‘아니다’와 ‘모르다’가 표준어와는 다른 의미·통사·담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제주방언의 존대법 표현에 대한 형태적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었는데 주로 현평효(1977, 1991)는 표준어 존대법과 비교하여 제주방언의 대자존대법, 주체존대법, 객체존대법에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강식(1989)에서는 제주방언의 존대의문법의 유형을 ‘-우가’형, ‘-ㄴ-가’형, ‘-마씀’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 어휘적,



문법적 의미를 고찰했다. 또한 고영진(2002)은 제주방언의 상대높임법과 표준어의 그것의 차이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며, 문순덕(2005)에서는 청자높임의 '마씀, 양, 예'를 중심으로 각각이 출현하는 통사 환경, 담화의미 등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제주방언의 어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강영봉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방언의 식물이름(1986ㄱ), 漁名(1986ㄴ), 인체어(1991), 동물이름(1994)등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또한 강영봉(1995)에서는 제주방언에서만 특수하게 쓰이는 몇몇 어휘들을 뽑아내어 살펴보기도 했다.

제주방언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표준어나 다른 지역 방언에서는 볼 수 없는 개별적인 문법 형태소에 대한 논의들이 특히 활발했다. 먼저 제주방언의 접미사에 대한 연구로는 강근보(1977)가 있으며 김홍식(1983)에서는 제주방언의 인칭 접미사, 강정희(1977, 1983)에서는 각각 동사류 접미사와 명사류 접미사에 주목했다. 송상조(1989)는 제주방언의 파생접미사 중 사물접미사를 대상으로 제주방언의 접미사 전반에 대한 목록을 공식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또한 정승철(1995)에서는 파생접미사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했고, 강영봉(1995)은 제주방언의 접두사의 목록을 133가지로 작성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제주방언의 선어말어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암시-'와 '-아시-'에 대해서 상당한 양의 연구를 볼 수 있다. 주로 현평효(1974), 홍종립(1976), 우창현(1995, 2002, 2004, 1997, 2008)에서 제주방언의 선어말어미 '-암시-'와 '-아시-'를 대한 형태·통사적 분석을 하고, 그 문법적 의미를 상으로 해석했으며, 문숙영(1998)에서는 제주 제주방언의 '-암시-'를 현재 시제로 보고 있다. 그밖에 현평효(1977)의 어미'-저, -주'에 대한 연구와 홍종립(1981)의 제주방언 선어말어미 '-크-'에 대한 논의가 더 보이며, 명사류어미 '-(이)랑'에 대해서는 강정희(1987, 1994)에서 그 형태론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제주방언의 독자적인 특성 중 하나인 '·'음가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가 현우중(1985, 1988)과 김원보(2005)에서 있었고, 고동호(2008)는 20대, 50대,

70대의 세대별 ‘.’음가의 변화양상을 고찰하여 현대 20대에서는 ‘.’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음가 뿐 아니라 제주방언의 단모음, 이중모음의 세대별 변화양상은 김원보(2005, 2006, 2007)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다.

이상의 제주방언에 대한 논의들은 제주방언이 보이는 형태적·통사적 특수성에 주목한 것들이 많았다. 또한 그 논의는 표준어와 비교를 하는 공시적인 형태와, 중세국어와 관련성을 찾는 통시적 형태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제주방언이 쓰이는 구체적인 발화 장면과 분리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살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도 하다.

현기영 소설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의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현기영 소설에 전반에 대하여 문학적 측면에서 살핀 연구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본 연구와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으나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방언은 지극히 구어적인 언어이므로, 소설 전체의 배경, 작중인물의 성격 등 텍스트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방언이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현기영 소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작품 「순이삼촌」과 제주4·3사건을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즉 현기영이 제주4·3사건을 직접 겪어본 경험자임에 주목하여 소설의 시점, 문체, 등장인물의 설정, 작품 전반의 고발적 성격 등을 고찰한 것이다. 이기세(1993)에서는 「순이삼촌」의 작품세계와, 현재적 의미, 그리고 현기영의 문학 세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김동윤(2003)은 특이하게 ‘제사’의 의미작용을 중심으로 현기영의 「순이삼촌」에 드러난 공동체적 삶의 양상을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작품 안에서의 집단양민학살의 참상과 그 상흔이 작중인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에 의해 드러나며, 또한 작중인물들 역시 4·3사건과 관련하여 몇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미(2005)에서도 현기영 소설의 주제는 4·3사건의 진상 규명과 제주도민의 소외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아진다고 하면서 특히 소설에 나타난 ‘불’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가의 창작태도, 역사적 의식을 살펴보았다. 김신영(2008)은 현기영 소설의 현실 반영적 측면, 특히 4·3사건과 관련하여 현기영의 작품이 어

떻게 역사적 사건을 형상화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건의 주제와 연관시켜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 그 양상을 살펴보기도 했다. 그 밖에 정문권, 이희영(2009)에서는 현기영 소설의 여러가지 측면 중에서도 특히 휴머니즘 특성에 주목하여, 그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복원 의지, 용서와 화해 등의 발현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현기영의 소설 연구는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과 비교·대조하는 방향으로도 진행되었다. 노종상(2000, 2010)에서는 구조주의 비평방법을 통해 두 작품을 형식적 측면과 '심적 거리'를 기준으로 대조하였고, 김은아(2005)는 두 작가가 보여주는 4·3사건 재현 방식의 차이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제주4·3사건이라는 특정 소재와 연관해서 현기영 소설을 분석한 것이다. 현기영이 그 사건의 직접 경험자임에 주목하여 소설 「순이삼촌」의 작중인물의 성격들이 다소 평면적이고, 작품 성격이 고발적인 면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 1.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텍스트 자료는 제주방언이 사용된 현기영의 장·단편 소설들로, 소설집 「순이삼촌」(1979), 「아스팔트」(1986), 「마지막 테우리」(1994)와 장편소설 「변방에 우짖는 새」(1983), 「바람 타는 섬」(1989), 「지상에 손가락 하나」(1999)를 대상으로 삼고, 각 자료에 나타난 방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기영 작품에 반영된 방언학적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국어학적 관점에서 문헌자료의 연구방법으로 제시된 작품들을 다룰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하고자하는 현기영의 작품 대부분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로 제주방언이 사용됐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소설이라는 것은 작가의 독창성이 들어간 문학작품이고, 일반 독자들의 수용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작가 개인이 어느 정도 정제된 방언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이 언어 자료가 배경으로 하는 방언의 특징을 정확히 얼마나 반영했는가 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작품의 배경이 되는 방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방언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품 속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연구 방법 및 범위를 제시하며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2장에서는 현기영 소설의 배경방언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본고의 연구는 실제 방언조사를 통한 연구가 아니라 문헌 자료에 반영된 방언 자료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 반영된 표기법적 특징과 그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제주방언의 특징이 문학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의의를 가지는 일이 될 것이다. 현기영의 소설에서는 대체로 대화문에서 방언이 사용되므로 주로 대화어를 중심으로 제주방언의 형태적 측면, 특히 종결법에 집중할 것이다. 종결법에 쓰인 형태들은 현기영 소설에서 제주방언적 요소를 잘 살려 본 방언만의 특수성을 잘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물론 현기영 소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주방언의 실현은 음운적인 측면, 어휘적인 측면 등에서도 고루 나타난다. 그러나 종결형에 비하여 그 특징이 미비하며, 또한 지문상의 한계로 인하여 본고에서는 현기영 소설을 전체적으로 살폈을 때 제주방언의 특징을 잘 살려낸 몇 가지의 주요한 종결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어휘나 기타 음운적인 요인은 그 속에서 두루두루 살펴볼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는 제주방언이 사용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피되 만약 다른 지역의 방언이 제주방언처럼 사용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와 같이 나타났는지를 함께 논의에 포함시켜 본고를 전개하겠다.

마지막 3장에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논의들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살피면서 결론을 짓고자 한다.

## 2.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제주방언 종결형 분석

문장은 마지막에 종결어미가 붙음에 따라 구조적으로 완성된 하나의 문장이 된다. 이와 같이 완결된 문장을 만드는 것을 '문장종결법'이라고 한다. 종결법은 문장의 형식으로 보면 문장을 끝맺는 완결문을 이루고, 거기에는 뜻으로 보면 말들음이에 대한 말할이의 의향이 드러난다(김석득, 1992). 이들의 하위 종류 구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 이견이 있어 왔으나 보통 학교문법에서는 말할이의 의향에 따라 '서술법·명령법·청유법·의문법·감탄법'의 다섯 가지를 들어 왔다. 하지만 감탄형은 보통 다른 종결형에서 감탄의 억양<sup>1)</sup>을 뚫으로써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형태적 특징이 희미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제주방언의 경우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감탄형을 구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제주방언에서 감탄형의 두드러진 형태적 특징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sup>2)</sup> 더욱이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현기영 소설에 한정된 제주방언 종결형은 대체로 감탄법의 효과가 서술형·의문형·명령형·청유형 문장 뒤 '!(느낌표)'의 표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청자를 대우하는 등급에 따라 존대·평대·하대의 삼분 체계<sup>3)</sup>를 상정하여 문장종결법을 살펴보면, 이들을 각각 서술법·의문법·청유법·명령법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박창해(1991)에서는 ' | ↓ | 끊음(interrupting)'이 발화의 말끝에 없으면 놀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고, 김석득(1992)에서도 '내리끊음(interruptin)'을 느낌법(감탄법)의 억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2) 강정희(1976)는 제주방언 종지법의 연구에서 종지접미사를 '권유형·명령형·의문형·서술형'으로 구분하였고, 성낙수(1992)에서는 제주방언의 풀이씨의 마침법을 '서술법·의문법·청유법·명령법'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했다.
- 3) 현평호(1974)과 홍종림(1975)에서는 제주방언의 청자 대우 등급을 흐라체·혀여체·흡서체의 삼분 체계로 상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따라 존대·평대·하대의 삼분 체계로 문장의 종결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2.1. 존대 표현

### 2.1.1. 서술법

현기영 작품에 나타나는 제주 방언의 서술법 형태 중 [+높임]의 자질값을 가지는 것은 [-우다]와 [-히네다]형이 있다. 이 중에서 [-우다]가 [-히네다]보다 덜 격식적이며 더 많은 빈도수를 보인다.

#### ① [-우다]

[-우다]는 겸양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우-]와 서술의 종결어미 [-다]로 분석될 수 있다.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 또는 진술하거나 화자의 선언 드러낼 때 이 형태를 주로 사용한다. 현기영의 작품에서는 [-우다]의 서술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 독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형태이면서도, 제주방언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다]는 표준어의 [-습니다]와 대체로 그 의미가 통하지만, 비교적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덜 형식적이고 익숙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다] 다음에는 제주방언의 여러 가지 첨사들, 예를 들어 [-게], [-기], [-젠], [-양] 등이 붙어서 /우다게, 우다기, 우다젠, 우다양/ 등으로 사용된다. 특히 이 중 /-우다게/ 같은 경우는 /-다/가 생략되어 /-우게/로 쓰일 수도 있다. 현기영의 소설에서도 /-다/가 생략되어 /-우게/로만 나타나는 경우를 한 차례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우다]와 /-수다/의 관계이다. [-우다]와 /-수다/의 차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지만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성낙수(1992), 정승철(1995), 김지홍(2000), 고영진(2002) 등에서는 둘을 형태론적 이형태로 보고, /-수-/를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로 밝힌 반면에 현평호(1975/1985), 강정희(1976), 홍종림(1995) 등에서는 /-수-/를 다시 ‘ㅅ’과 ‘우-’로 분석했다. 그러나 현기영의 소설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우다]형과

/-수다/의 의미 차이가 두드러지지, 옳으며 대체로 앞에 오는 요소가 모음으로 끝날 때는 [-우다]가 쓰이며, 자음일 경우에는 /-수다/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수다/를 [-우다]의 이형태로 보기로 한다.

현기영 소설에서 [-우다]의 서술법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제주도의 고유한 방언형이며, 비교적 덜 형식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표준어나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독자들은 제주 방언 특징을 느끼면 서도, 해독의 어려움 없이 작품을 읽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소설에서의 [-우다]는 실제 제주방언 화자들이 구어에서 실현하는 것처럼 현기영 소설 전체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우다]종결법의 빈도수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다.

지상에 손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11	61	12	2	2	3	5	6	12	6	1	121

<표1> 존대 서술법 [-우다]의 출현 수

[-우다]는 형용사나 ‘이다’의 어간 바로 뒤에 쓰이거나 여러 용언과 종결어미 사이에 시간과 상을 나타내는 요소와 결합된 형태로 실현되었다. 또한 체언 바로 뒤에 붙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1) ㄱ. 하늘의 별들이 바다에 떨어진 것 뵈수다. (지상에 손가락 하나, 221쪽)
- ㄴ. 저런, 찻쫂. 그건 보리우다, 보리. (바람 타는 섬, 19쪽)
- ㄷ. 아이, 이럴 때 보면 김선생님 꼭 어딘가 모자란 사람 갈수다예,

(바람 타는 섬, 324쪽)

ㄹ. 열중 쉬었! 차렸! 하고 우렁차게 구령을 질렀수게.

(지상에 순가락 하나, 234쪽)

제주방언에서 [-우다]는 동사에는 직접 연결될 수 없고, 어간 뒤 [-아시-]와 [-암시-], [-크-] 등의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상형태소가 어간에 결합되어야만 동사에 붙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형용사와 '이다' 뒤에는 직접 결합되어 쓰일 수 있으며, 역시 [-아시-], [-암시-], [-크-] 등의 시상을 나타내는 제주방언의 요소들과 어울려 쓰인다. '이다'의 경우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에 결합할 때는 생략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현기영의 소설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이 두루두루 보였다.

(1ㄱ)에서는 어린 주인공인 '나'가 '엄마'에게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느낀 감상을 말하고 있다. [-우다] 종결법을 사용하여 친근한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형용사인 '맑다'와 [-우다]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맑수다'로 실현된다. '맑우다'가 아닌 이유는 앞의 요소가 자음인 경우엔 [-우다]의 이형태 /-수다/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1ㄴ)은 본래 '보리+이+우다'겠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모음으로 끝난 형태소(보리) 뒤에 '이-'가 생략되어 '보리우다'가 되었다. (1ㄴ)은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며느리'의 대답으로 격식있는 [-읍네다]종결형이 아닌 [-우다]를 선택하여서 둘의 편안한 관계를 보여준다.

(1ㄷ) 과 (1ㄹ) 에서는 각각 [-우다] 다음에 칭사 [-예]와 [-게]가 붙어있다. (1ㄷ)은 소설의 주인공인 '여옥'과 '시중'의 대화인데 단순한 서술의 의미를 지닌 /-수다/형에 칭사 [-예]를 붙인 형태이다. 여기서 [-예]는 본래 경상도 방언 등에서 서술어의 어말에 첨부되어 존대를 표시하는 칭사의 기능을 하다가, 제주방언에 전파된 것이다. 제주방언에서의 칭사 [-예]는 높임이나 낮춤의 의미를 지닌 종결형에 두루 첨가되어서 칭사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문순덕 2005). [-예]의 첨가는 주로 젊은 여성 화자에게서 볼 수 있는데, 현기영의 소설에서 나타난 (1



ㄷ)의 경우도 역시 화자는 ‘여옥’이라는 젊은 여자이다.

(1ㄷ)의 ‘질렀수게’는 ‘질렀수다게’에서 [-다]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첨사 [-게]는 제주방언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소로써 ‘확인, 재촉’의 뜻을 나타낸다(강정희, 1974). 이 발화는 아들이 죽은 ‘신석 어머니’와 주인공인 어린 ‘나’가 대화를 주고 받는 중에 나온다. 어린 ‘나’는 아들을 잃은 ‘신석 어머니’에게 그의 아들이 얼마나 멋졌는가를 열심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즉 그녀의 죽은 아들이 생전에는 얼마나 멋있었는지를 확인시켜 주면서 ‘신석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으며 두 작중인물 사이는 훨씬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질렀수게’를 분석해보면 동사 ‘지르다’와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합쳐져 있는데, 이 /-었-/은 제주방언에는 없는 형태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었-/과 제주방언의 형태소가 합쳐진 경우가 현기영 소설에서는 꽤 자주 등장한다.

- (2) ㄱ. 우리 청년회에서 소비조합을 시작했수다. (바람 타는 섬, 132쪽)  
    ㄴ. 잘못했수다, 잘못했수다. (잃어버린 시절, 19쪽)  
    ㄷ. 저 아이가 다섯 살 될때까진 저게 사람이 될까 귀신이 될까 늘 걱정이었수다.  
        (바람 타는 섬, 253쪽)  
    ㄹ. 나 잘도 울었수다. (바람 타는 섬, 254쪽)

(2ㄱ-ㄹ)은 본래 제주방언대로 하면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 (2) ㄱ'. 우리 청년회에서 소비조합을 시작했수다.  
    ㄴ'. 잘못했수다, 잘못했수다.  
    ㄷ'. 저 아이가 다섯 살 될때까진 저게 사람이 될까 귀신이 될까 늘 걱정이었수다.  
    ㄹ'. 나 잘도 울었수다.

즉 [-우다] 종결 어미 앞에 /-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앗-/ 또는 /-엇-/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는 제주방언에서 논란이 많

은 시상 중 하나인 [-아시-]는 보통 '완료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면 /-앗-/과 /-엇-/ 등을 이형태로 든다. 현기영의 소설 안에서는 [-아시-]의 이형태인 /-앗-/ 또는 /-엇-/ 이 모두 /-앗-/ 또는 /-엇-/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표준어의 영향이 제주방언의 표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주방언 화자들의 의식 속에서 /-앗-/ , /-엇-/이라는 형태보다 /-앗-/ , /-엇-/의 영향력이 커진 까닭으로 보인다. 즉 음성으로 들리는 /-앗-/과 /-엇-/을 익숙한 형태인 /-앗-/ , /-엇-/으로 표기한 것이다.

② [-ㄷ네다]

이 형 역시 표준어의 [-습니다]와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겸양접미사 /-ㄷ-/이 사용되어 앞에서 살펴 본 [-우다]형에 비해 좀더 형식적이고 격식을 갖춘 느낌을 준다(강정희, 1976). [-우다]형과 마찬가지로 [-ㄷ네다]형도 화자가 단순한 내용을 진술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서술, 단언할 때 나타난다. 동사, 형용사에 두루 붙어 쓰일 수 있고, [-암시-/아시-]나 [-크-]와 같은 제주방언의 시제·상을 나타내는 요소와 결합할 수 있다. [-네-]가 쓰임으로써 제주 방언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이 종결형은 현기영의 장편 소설의 「바람 타는 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다른 작품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지상에 술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3	26	0	0	0	0	0	1	0	3	1	34

<표2> 존대 서술법 [-ㄷ네다]의 출현 수

[-ㅂ네다] 종결형은 34번 중 「바람 타는 섬」에서 과반수가 보인다. 일상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는 현기영의 소설 안에서는 격식과 형식을 갖춘 [-ㅂ네다]형보다는 덜 형식적인 [-우다]형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ㅂ네다]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 「바람 타는 섬」 작품에서도 주로 잠녀들이 바다로 나가기 직전에 신에게 제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할 때와 여러 청자들 앞에서 연설할 때 자주 쓰이며, 「지상에 순가락 하나」에서 나타난 단 세 번의 [-ㅂ네다]도 두 번은 신화 속 이야기가 삽입된 부분에서 '한라공이'의 어머니가 '주인어른'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쓰였다.

- (3) ㄱ. 다녀간 지 막 오래됐수다마. 작년 여름에 땡겨간 후로 편지도 잘 안  
옵네다마. (지상에 순가락 하나, 196쪽)
- ㄴ. 이 마을 풍습은 어떤지 모르나, 우리네 풍습은 뱃속의 아기를 낳은  
 후에야 몸을 허락하는 별입네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273쪽)
- ㄷ. 우리 쉼 만큼 쉬어사 일합네다.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맙서.  
 (바람 타는 섬, 279쪽)
- ㄹ. 좁씨를 뿌립네다. 곡식 풍년 주십서. 소라씨, 전복씨 뿌립네다.  
 소라, 전복 많이 열게 해줍서. (바람 타는 섬, 9쪽)
- ㅁ. 우리 모두 단결해서 조합을 반대해서 합네다. 조합의 나쁜 점은 고쳐사  
합네다! (바람 타는 섬, 345쪽)

(3ㄱ)는 주인공인 어린 '나'가 '아버지가 언제 다녀갔나'는 친척 아저씨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장면이다. 이 때 친척아저씨는 주인공과는 가끔은 만나는 사이로 '어머니'나 '할머니' 등의 어른들보다는 소원한 사이기 때문에 [-우다]형과 [-ㅂ네다]형을 섞어서 사용하여 말을 하고 있다. '오다'와 [-ㅂ네다]가 결합된 형태에서 첩사 [-마]가 이어졌다. 이 종결형에 첩사가 붙은 경우는 이 경우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

(3ㄴ)은 소설에 삽입된 제주의 '한라공이 신화' 중 일부이다. '낭군님'을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부잣집 종살이를 하고 있는 '부인님'이 잠자리를 요구하는 '주

인어른'에게 몸을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ㄷ네다]형이 사용되었다. [-ㄷ네다]형을 써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부인님'과 '주인어른'의 관계가 노비와 주인, 즉 명백한 하위자와 상위자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즉 여기서 사용된 종결형은 확실하게 '높임'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다'와 바로 연결되어 실현되었다.

(3ㄷ)은 상군 잡녀인 '도아'가 일본인 '구로다'에게 자신의 생각을 단언하고 있는 장면이다. 일본인 '구로다'는 장면을 착취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도아'와는 갈등관계에 있다. 여기서 [-우다]형이 아닌 [-ㄷ네다]형을 사용했다. '구로다'를 손윗사람으로 여겨서 [-ㄷ네다]종결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구로다'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공격적이고,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ㄷ네다]형을 썼다. [-ㄷ네다]형을 사용해서 '도아'와 '구로다'가 서로 친밀하지 않은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는 '하다' 뒤에 바로 이어져서 사용되었다.

(3ㄷ)에서는 상군 잡녀들이 바다의 용신들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다. 신에게 소원을 빌고 있는 만큼 [-ㄷ네다]의 종결형을 사용하여 매우 정중하게 예를 올리고 있다. 무가와 관련된 장면에서는 모두 [-ㄷ네다]형이 사용되며, [-우다]는 단 하나의 경우만 보일 뿐이다. 분석해보면 동사 '뿌리다'의 '뿌리-'와 [-ㄷ네다]로 나눌 수 있다.

(3ㄷ)은 화자가 다수의 청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공개적이고 형식적인 자리인 만큼 [-우다]가 아닌 [-ㄷ네다]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용언 '하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3ㄷ)과 (3ㄷ)을 통해 보았을 때 [-ㄷ네다]종결형은 청자에게 '존대'의 의미를 표현할 때, 공식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갖추어 말할 때 사용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제주 방언에서 [-ㄷ네다]형은 현재 시제는 물론이고 '과연 모르커심네다.'나 '난 밥 먹엄심네다.'(성낙수, 1992)처럼 [-아시-], [-암시-], [-크-] 등과도 결합된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현기영의 작품 속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우다]와 마찬가지로 제주 방언의 특유 분위기를 드러낸 것임에 틀림없다.

## 2.1.2. 의문법

제주방언에서 종결어미 [-ㅍㅏ]는 /-과, -광, -까, -가, -깡, -강/ 등의 여러 변이형태 중 하나이다(성낙수, 1992). 기본형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ㅍㅏ]를 기본형으로 다루고자 한다. 위의 종결어미들은 모두 수의적 변화에 의한 이형태들이지만 실제 제주 방언에서는 /-광, -깡, -강, 강/ 등의 형태는 별로 쓰이지 않고 있으며 현기영의 소설에서도 [-ㅍㅏ]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기영의 작품들에서는 의문형 종결어미 중에서 [-ㅍㅏ]가 가장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다른 이형태들이 아예 안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 -까, -과/의 순으로 이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ㅍㅏ]를 가지는 종결형은 [-가]나 [-고] 등의 다른 형태를 지닌 종결형에 비해 두드러진 빈도수를 보였다. 서술형인 [-우다]와 마찬가지로 [-ㅍㅏ]의 형태가 제주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독자들에게 해독의 어려움 없이 제주도 배경을 떠올리기 쉽게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의문 종결 어미인 이 형태는 [-우-], [-리-], [-네-], [-데-]와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데, 현기영의 소설에서는 각각의 이형태들이 특정한 선어말어미와만 결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우-]는 [-ㅍㅏ]와만 결합하여 [-우ㅍㅏ]의 형태로, [-네-]는 [-까-]와 결합하여 항상 [-네까]의 형태로 쓰였으며, 선어말어미 [-리-]가 함께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데-]는 [-가]와만 결합하여 쓰였다.

### ① [-우ㅍㅏ]

[-우ㅍㅏ]의 종결형은 화자가 자신보다 상위자인 청자에게 친근하고 형식을 차리지 않은 채 질문을 하는 것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단순한 질문이나 의문을 의미하며, 표준어의 [-니까]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모음 뒤에서는 [-

우파]가, 자음 뒤에서는 [-수파]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동사와 형용사에 두루 붙을 수 있다. [-아시-]와 [-암시-]가 붙어서 /-앗수파/ 혹은 /-암수파/ 등의 형태로 쓰일 수도 있고, 선어말어미 [-크-]와 결합하여 /-쿠파/등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현기영의 작품들에서는 이러한 형태들이 두루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해서 [-우파]의 구체적인 쓰임을 살펴보자.

- (4) ㄱ. 어휴, 무서워라. 무슨 손이 그리 크우파? 꼭 솔뚜껍 같다. (바람 타는 섬, 329쪽)  
 ㄴ. 달이 저렇게 좋은데 벌써 들어감수파? (바람 타는 섬, 216쪽)  
 ㄷ.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우파? (순이 삼촌, 쪽)  
 ㄹ. 죽은 놈이 어떻게엔 입산자우파? (아스팔트, 46쪽)  
 ㅁ. 알았수과? (지상에 순가락 하나, 87쪽)  
 ㅂ. 이 섬 사람이라면 (중략) 폭도로 몰아치길 좋아하는 그것들이 토벌군이렌  
 달리 생각해 주는 중 알암수과? (해룡이야기, 132쪽)

(4ㄱ)은 형용사 ‘크다’의 어간에 붙어 있는 기본 형태이다. 소설 「바람 타는 섬」에서 ‘여옥’이 ‘시중’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인데, 단순한 물음보다는 감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4ㄴ)은 「바람 타는 섬」에서 ‘영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잠녀인 ‘양순심’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다. 동사의 어간과 종결어미 사이에 [-암시-]가 삽입 나 있어서 [-ㅁ 수파]의 형태가 되었다. 표준어로 보면 “달이 저렇게 좋은데 벌써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도가 될 수 있다.

(4ㄷ)은 ‘이다’와 [-우파]가 결합된 형태이다. 서술형인 [-우다]와 마찬가지로 [-우파]가 자음으로 끝난 형태소와 결합될 경우 ‘이다’는 생략될 수 없지만, (4ㄹ)에서 보듯이 모음으로 끝난 형태소와 결합할 경우에는 ‘이-’가 생략될 수 있다.

(4ㄹ)은 본래 ‘입산자’와 ‘이다’가 결합된 형태에 ‘우파’가 더해진 것이다. ‘이다’가 생략되지 않는다면 ‘입산자이우파?’가 될 수 있다.

(4口)과 (4ㅂ)은 [-ㅍ]의 이형태인 [-과]가 나타난 경우이다. 이형태 [-과]는 [-ㅍ]가 [-우-]랑만 결합되어 실현된 경우와는 달리 /-수-/와만 결합해서 /-수과/로만 나타났다. 또한, 반드시 시상형태소인 /-앗-/과 /-암-/과 함께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수과/와 /-수과/간의 뚜렷한 의미 차이나 출현 환경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현기영의 소설에서 총 다섯번 나타나는 /-수과/가 모두 남성의 화자에게 나왔다는 점만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이상에서 [-우과]종결형은 제주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독자들이 어려움 없이 쉽게 제주도라는 배경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다]와 마찬가지로 소설 내에서 두루 쓰였다. 제주방언에서 곁양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우-]는 반드시 [-ㅍ]와만 결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의 의식 속에는 [-우과]가 하나의 표현 형태로 굳어진 듯이 보인다. 즉 [-우-]가 원순모음임을 생각할 때 [-까]보다는 같은 원순모음 형태인 [-ㅍ]가 결합된다고 본 것이다. 이 종결형은 다른 의문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두드러진 출현수를 보인다. 이는 [-우과]가 앞서 살펴본 [-우다]형과 마찬가지로 제주 방언 화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2	20	10	1	1	3	0	0	7	2	5	51

<표3> 존대 의문법 [-우과]의 출현 수

## ② [-ㅂ네까]

[-ㅂ네까]형 역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높임]의 자질값을 갖는

종결형이지만, [-우파]보다는 형식적이고 정중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겸양형 태소인 /-ㄱ-/의 첨가 때문이다. 동사, 형용사와 '이다'에 결합되어 쓸 수 있다. 현기영의 작품들에서는 [-ㄱ네까] 말고는 다른 이형태들을 찾아볼 수 없다. 쉽게 말해서 /-ㄱ네짜/나 /-ㄱ네과/ 혹은 /-ㄱ네가/ 등의 변이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특별한 규칙이 있다고 보기 보다는 [-우파]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의식 속에서 하나의 굳어진 형태로 보인다. [-ㄱ네짜]로 발음하여 평순에서 원순모음으로 입술을 움직이기 보다는 편의상 [-ㄱ네까]가 같은 평순-평순 계열의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더 편한 것이다.

- (5) ㄱ. 산육이는 열병으로 귀가 먹어 요 모양이고 그 밑으로 돌을 낳았는데 돌림병으로 덜컥 덜컥 죽고 나니 걱정이 안될네까. (바람 타는 섬, 253-254쪽)
- ㄴ. 나리, 나오셨습네까? (바람 타는 섬, 230쪽)
- ㄷ. 차차라니 원, 손주 턱에 흰수염 날 때거정 기다리란 말입네까? (바람 타는 섬 69쪽)
- ㄹ. 연유 말씀 여쭙기는 다름 아니라 영등할마님, (중략) 모두 불쌍한 할마님 자손 아닐네까? (바람 타는 섬, 8쪽)

(5ㄱ)은 「바람 타는 섬」에서 '여욱 어머니'에게 '산육 어머니'가 말을 건네는 장면이다. 두 작중인물은 같은 마을에 사는 친한 이웃 사이인데 [-우파]형 대신에 [-ㄱ네까]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둘의 전체적인 대화를 살펴보면 [-우다]형을 사용하여 두 작중인물 사이가 격식을 차릴 만큼 소원하거나 어려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6) “나도 두민이 큰 것 보면 꿈만 같이 마췌. 저 아이가 다섯 살 될 때까지 저게 사람이 될까 귀신이 될까 늘 걱정이었수다. 그래서 다섯 살까진 이름도 안 지어주고 그냥 ‘개똥이’라고 불렀는데……산육이는 열병으로 귀가 먹어 요 모양이고 그 밑으로 돌을 낳았는데 돌림병으로 덜컥덜컥 죽고 보니, 걱정이 안될네까. 두민이 높은 이제 한시를 놓았지만, 요 산육이년이 나이 먹을수록 걱정이우다. 이 반병신을 누가 데려갈는지……휴



우.”

“그거야 인력으로 되는 것가. 자식 농사 반타작인걸. 그러니 하고 생각하고 말아야지. 나도 만기 위로 하나 잃어버렸져. 어휴, 공연히 세상에 나와 에미 가슴에 못만 박고 갔으니, 애틁이여 애틁.” (바람 타는 섬, 253-254쪽)

위 (6)에 인용된 ‘여옥 어머니’와 ‘두민 어머니’의 대화를 보면 그 내용이나 말투 모두 격식을 차리지 않고 소소한 것들이다. ‘두민 어머니’는 오히려 ‘걱정이 었수다, 걱정이우다’ 등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우다]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옥 어머니’ 역시 ‘두민 어머니’를 친한 동생 대하는 듯한 말투를 유지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네까]의 종결형이 반드시 격식을 갖춘,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추측할 수 있다. ‘두민 어머니’가 [-네까]를 사용하여 “걱정이 안됩네까”라고 말한 것은 ‘여옥 어머니’에게 어떤 대답을 바라고 묻는 것이 아니다. 이 때의 [-네까]는 일종의 수사의문문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격식체의 의문표현이라기 보다는 ‘두민 어머니’ 자신의 심정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알맞을 것이다.

반면 (5ㄴ)과 (5ㄷ)에서 [-네까] 형은 훨씬 형식적이고 격식을 갖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5ㄴ)에서는 일본 순사의 부장인 ‘와다’에게 조선인 패거리들이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청자보다 신분이 명백히 아래에 있는 화자가 정중하게 말을 건네는 와중에 [-네다]종결형이 쓰인 것이다.

(5ㄷ)은 ‘도아’가 잠녀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조합서기’에게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네까]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는 ‘도아’는 ‘조합서기’를 자신보다 상위자로 생각하여 정중하게 ‘질문’을 한다고 보기 보다는 ‘조합서기’에 대한 ‘도아’의 상당한 거리감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도아’의 불만을 표현하기 위한 ‘조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ㄹ)은 ‘영등할마님’께 잠녀들이 제를 지내는 장면에서 [-네까]가 실현되었

다. 이 역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ㄷ네까]를 사용하였다.

이상을 통하여 [-ㄷ네까]는 [-우짜]보다 대체적으로 격식 있는 표현이며 청자인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실히 [-ㄷ네까]는 [-우짜]가 어린아이들의 발화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성인 화자들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ㄷ네까]의 출현 수는 [-우짜]보다 낮다. [-우짜]형 보다는 격식을 갖춘 표현이므로 신계제를 지내는 장면이 많은 작품인 「바람 타는 섬」에서 많은 빈도수를 보인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0	7	0	0	0	0	0	0	1	3	0	11

<표4> 존대 의문법 [-ㄷ네까]의 출현 수

### ③ [-ㄷ데가]

제주방언에서 [-ㄷ데가] 역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형식을 갖추어 정중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ㄷ네까]가 단순한 의문과 질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때, [-ㄷ데-]와 결합된 종결형은 화자가 청자의 회상, 추억에 대하여 묻는 것이 된다. 표준어에서의 [-ㄷ디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종결형은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제는 물론 [-아시-]와 [-암시-], [-크-]등의 제주방언의 독특한 시상 선어말어미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

(7) ㄱ. 아이고, 요 어른아. 오늘은 무사 이리 늦읍데가. (거룩한 생애, 25쪽)

ㄴ. 민기 어멍이 그런 말을 헐디가? (순이 삼촌, 47쪽)

현기영 작품에서는 앞서 살펴본 [-우짜]와 [-히네까]의 경우와 같이 회상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어미 [-데-]와 결합하는 의문종결어미는 [-가]만 나타난다. (7ㄱ)은 죽은 남편을 보고 탄식하는 ‘갓난이 어머니’의 발화이고, (7ㄴ)은 주인공인 ‘나’가 ‘순이 삼촌’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7ㄱ)은 과거의 회상, 추억에 대해서 물어보는 의문형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 이 때 의문형은 한탄을 표현하는 수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7ㄴ)은 ‘순이 삼촌’이 ‘나’에게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나’가 욕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물어보며 화를 내는 장면이다. ‘민기 어멍’이 과거에 ‘그런 말’을 했었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히디가]형이 사용되었다.

두 발화문에서 나타나는 [-데-]와 /-디-/는 수의적인 변화에 의한 이형태로 보인다. (7ㄱ)의 한 경우만 [-히데가]로 쓰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히디가]로 나타난다. 또한 [-히디가]는 오직 남성 화자들만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종결형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사용 빈도를 보이며 작중 인물이 거의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작품 「순이삼촌」에서 두드러진 출현 수를 보인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0	0	6	0	0	1	0	0	1	1	0	9

<표5> 존대 의문법 [-히데가]의 출현 수

### 2.1.3. 명령법

[+높임]의 자질값을 가지고 있는 제주방언의 대표적인 명령형은 [-ㅂ서]가 있으며 이 명령형은 현기영의 소설에서도 높은 출현 수를 보인다.

[-서]가 명령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양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ㅂ-]을 앞세워야 한다.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는 [-ㅂ서]로,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는 /-읍서/로 결합한다. [-ㅂ-]과 결합하여 쓰이는 [-서]는 상위자에 대한 명령, 요구 등을 정중하게 말할 때 쓰인다. 이 형태는 청유법과 같으나 동작주가 1인칭 복수가 아닌 2인칭인 것이 다르다. 시간성은 항상 현재이며 동사와 결합되어 나타나게 된다.

[-ㅂ서]명령형은 현기영의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8) ㄱ. 어머니야 어머니야, 콩이나 한 되 볶아줍서. (지상에 숟가락 하나, 273쪽)
- ㄴ. 주걱 못 찾거들랑 손으로라도 젓읍서. (지상에 숟가락 하나, 273쪽)
- ㄷ. 자, 이것을 받고 돌아갑서! (바람 타는 섬, 346쪽)
- ㄹ. 앉아 천리 보고 서서 만리 보는 영등할마님, 오곡씨 미역시 많이 많이  
        주고 갑서. (바람 타는 섬, 8쪽)
- ㅁ. 동네 사람들, 우리집에 구경들 읍서! 우리 아방 어떻 막 불영 싸왓시난 구경들  
        읍서! (지상에 숟가락 하나, 366쪽)
- ㅂ. 낭군님아 낭군님아, 나는 이제 더 곁을 수가 없으니, 저 마을의 제일  
        부잣집에 나를 종으로나 팔아두고 떠나십서. (지상에 숟가락 하나, 272쪽)
- ㅅ. ....다시는 안하커매, 한번만 용서해 줘서, 한번만 용서해 줍서게.  
        (도령마루 까마귀, 97쪽)

(8ㄱ)은 2인칭 화자에게 [-ㅂ서]형을 사용한 경우이다. (8ㄱ)은 「지상에 숟가락 하나」 작품 안에 삽입되어 있는 '한라꿈이' 신화이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한라꿈이'가 콩을 볶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으로 '볶아주-'에 [-ㅂ서]가 결합되어 있

다. 표준어로는 '볶아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8ㄴ)은 '젓다'와 결합하여 /-읍서/ 형을 보인다. 표준어에서 '스불규칙용언'인 '젓다'가 여기에서는 어간의 변화 없이 종결어미와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8ㄴ) 역시 '한라공이'가 2인칭 청자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손으로 콩을 저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다.

(8ㄷ)은 소설의 작중인물 중 하나인 '시중'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는 장면으로 2인칭 화자가 아닌 다수의 화자들에게 [-ㅅ서]명령형을 사용한다. '돌아가-' 뒤에 [-ㅅ서]가 붙어 있다.

(8ㄷ)에서는 '노파'가 '영등할마님'께 풍년을 기원하며 제를 올리고 있는 중간에 나오는 발화이다. (8ㄷ)과 (8ㄷ)을 통해 보았때 [-ㅅ서]형은 형식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형임을 알 수 있다.

(8ㄹ)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 고함을 치며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발화는 실제로 '동네 사람들'을 청자로써 자신의 앞에다 두고 싸움구경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하는 부모님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더 크다. 그러므로 [-ㅅ서]의 명령형은 2인칭 청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청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듯하다.

(8ㄹ)도 '한라공이' 신화 안의 내용으로 '한라공이'의 어머니인 '부인님'이 남편 '낭군님'에게 자신을 버리고 가라고 요청하는 말이다. 동사 '떠나다'와 주체 존대의 의미를 가진 [-시-]아래에 [-서] 종결어미가 붙었다. 그런데 동작의 주체를 높이는 [-시-]는 본래 제주방언에는 없었던 형태소이다. 즉 원래대로 하면 '떠남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주체 존대의 [-시-]가 결합된 형태를 보이는 명령형이 현기영 소설에서는 자주 보인다.

(9) ㄱ. 자, 선생님, 뒤에 타십서. (아스팔트, 68쪽)

ㄴ. 원, 벨 말씀, 혼저 드십서. (길, 81쪽)

ㄷ. 뱃속의 아기 이름이나 지어두고 가십서. (지상에 숟가락 하나, 272쪽)

ㄹ. 과연 살려주십서. (바람타는 섬, 8쪽)

ㄱ. 곡식 풍년 주십서. (바람 타는 섬. 9쪽)

제주 고유의 방언형에서 위의 표현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 (9) ㄱ'. 자, 선생님, 뒤에 답서.  
 ㄴ'. 원, 벨 말씀, 혼저 들서.  
 ㄷ'. 뱃속의 아기 이름이나 지어두고 값서.  
 ㄹ'. 과연 살려줍서.  
 ㅁ'. 곡식 풍년 줍서.

강정희(1976)에서는 동작의 주체를 높이는 [-시-]형태소가 사용된 것이 표준어의 보급이 이루어진 이후, 최근 젊은층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기영의 소설에서도 이러한 제주방언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8ㅅ)은 종결어미 뒤에 첨사 [-게]가 붙어 있다. [-게]는 의문형을 제외한 모든 형에 붙어 ‘확인’, ‘재촉’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주방언에서 상하관계 모두 사용되는 가장 보편화된 형태소이다(강정희, 1976). 이 발화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는 ‘용서해줍서’에 첨사 [-게]가 붙음으로써 발화자의 급한 마음을 더욱 강조하여 드러낸다.

존대의 명령형 [-ㅂ서]는 현기영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11	46	7	1	0	6	5	4	6	6	2	94

<표6> 존대 명령법 [-ㅂ서]의 출현 수

### 2.1.4. 청유법

제주방언에서의 고유한 존대의 청유법으로는 [-ㅂ서] 등이 있다. [-ㅂ서]는 제주 방언의 고유방언형으로 명령형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명령형의 청자가 2인칭인 반면에 청유형 [-ㅂ서]의 청자는 1인칭 복수인 점이 다르다. 그런데 현 기영의 소설들에서는 [-ㅂ서]의 청유형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ㅂ시다] 청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10. 잠깐만, 여러분! 이제 이 대회를 끝마무리합시다. (바람 타는 섬, 346쪽)

위의 발화는 연설을 끝내는 도중에 성인 남성 화자인 '시중'이 청중들에게 소리치는 장면이다. 이는 고유의 제주방언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다른 방언의 유입으로 보는 편이 옳겠다. 아마도 [-ㅂ서]는 명령의 기능과 청유의 기능 중에서 명령형의 기능만 더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청유형[-ㅂ서]는 유입된 방언형인 [-ㅂ시다]에 자리를 내어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상에 술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0	1	0	0	0	0	0	0	0	0	0	1

<표7> 존대 청유법 [-ㅂ시다]의 출현 수

## 2.2. 평대 표현

평대 표현은 [ $\pm$ 높임]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가 높임과 낮춤의 격식을 차리지 않을 만큼 친밀할 때 쓰인다.

### 2.2.1. 서술법

#### ① [-아]

제주방언에서 [-아]는 몇 가지 음운론적 이형태가 존재한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형태는 /-어/, /-여/ 등이다. 시간성이 현재일 때, 즉 [-아] 앞에 문법적 요소가 없을 때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할 수 있다. 만약 앞에 [-아시-], [-암시-]등의 요소가 있을 때에는 동사, 형용사와 결합하되 이형태인 /-아서/, /-암서/로 실현된다. 또한 [-크-]와 함께 쓰인다면,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할 수 있고 /-키어/로 나타난다.

현기영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아]종결형은 다음과 같다.

(11) ㄱ. 내가 죽든지, 도망가든지 해야지, 이렇게는 못 살아.

(지상에 순가락 하나, 300쪽)

ㄴ. 그건 서울 조캐 말이 맞아. (순이 삼촌, 쪽)

ㄷ. 아이고, 전생 곳은 팔자여. (거룩한 생애, 32쪽)

ㄹ. 그냥 돌담 울타리가 와르륵 무너지고, 가게 유리창이 와장창 부서지고,

우와, 굉장해서. (지상에 순가락 하나, 45쪽)

ㅁ. 엄니, 오빠 봐! 밥은 안 먹고 반찬만 먹었서! (지상에 순가락 하나, 117쪽)

현기영의 소설 내에서는 실제 제주방언과 마찬가지로 동사, 형용사, '이다'와 [-아]가 고루 결합된 모습을 보인다. (11ㄱ)에서는 동사 '살다'와 [-아]가 결합하였



다. 어간 바로 뒤에 붙었기 때문에 [-아] 형태 그대로 나타난다.

(11ㄴ)에서는 형용사 ‘맞다’와 [-아]가 바로 결합하여 그대로 ‘맞아’가 되었다.

(11ㄷ)는 체언 ‘팔자’에 ‘이다’가 결합한 후 [-아]가 더해졌다. 풀어서 보면 ‘팔자이어’가 된다.

(11ㄹ)은 ‘굉장하다’라는 형용사와 [-아] 사이에 [-아시-]가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굉장하아’가 아닌 ‘굉장해서’로 실현되었다. 이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굉장했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1ㅁ)은 ‘먹다’에 [-암시-]가 결합되어 ‘먹엄서’로 실현되었다. 반찬만 먹고 있는 오빠를 보고 엄마에게 ‘밥은 안 먹고 반찬만 먹고 있어!’라고 외치고 있다.

사실 [-아] 종결형 자체는 [-아시-]와 [-암시-]가 없다면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제주방언인지 아닌지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소설 내에서 제주 토박이의 발화라는 점에서 위의 표현들이 제주방언의 평대 서술형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현기영의 소설에서는 위의 종결형보다 이형태 /-여/가 쓰인 형태가 더욱 관심을 끈다.

(12) ㄱ. 그렇지 않으면 피에 엉겨 죽창이 빠지질 않애여. (잃어 버린 시절, 32쪽)

ㄴ. 울긴, 이상버텀 맘보 단단히 먹어사 해여. (귀환선, 97쪽)

ㄷ. 월아야, 시집살이는 네가 사는 거지, 부모가 사는 게 아니여.

(바람 타는 섬, 278쪽)

ㄹ. 보지 않아도 눈썹이 시꺼멓고 코밑이 꺼무끄레 숨털이 나 있으면 배꼽 아래도 지슴이 많은 거여, 하하하. (바람 타는 섬, 17쪽)

ㅁ. 우리 산옥이가 머리칼 율이 굵고 검은 걸 보면 아기도 잘 낳을 거여.

(바람 타는 섬, 254쪽)

ㅂ. 집안의 불씨는 시에미가 며누리한테 대대로 꺼뜨리지 않고 물려줘야 하는 벌이여. (바람 타는 섬, 19쪽)

ㅅ. 비가 왔으니, 내일 아침 일찌거니 조밭에 같이 갔다 와사 허키여.

(지상에 손가락 하나, 176쪽)

‘않다’와 /-여/가 결합될 때 제주방언에서는 ‘않아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2ㄱ)과 같은 ‘않애여’로 실현된다. ‘않다’의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보면 ‘않애여’는 ‘아니하- + -여’로 분석할 수 있다. 제주방언에서 ‘하-’와 /-여/가 결합하면 ‘하여’가 아닌 ‘해여’로 실현된다. 이는 (12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않다’와 /-여/의 결합은 항상 ‘않아여’가 아닌 ‘않애여’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주방언이 쓰인 현기영 소설에서의 모든 ‘않다’와 /-여/의 결합체는 항상 ‘않애여’로 실현된다.

‘아니하-’가 아닌 ‘아니-’와 /-여/가 만나서 (12ㄷ)처럼 ‘아니여’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12ㄷ)역시 형용사 ‘많다’에 관형형 어미 ‘-을’이 결합되었고 의존명사 ‘거’가 /-여/ 앞에 있는 형태로 역시 구어적이다.

(12ㄹ)에서는 동사 ‘낳다’에 관형형 어미 ‘-을’이 붙고 /-여/ 앞에는 의존명사 ‘거’가 결합된 표현으로 구어적인 성격이 강해보인다.

(12ㄴ)은 체언 ‘뱀’뒤의 ‘이다’에 /-여/가 이어진 형태이며 (12ㄸ)은 /-여/ 앞에 제주방언 고유의 형태소인 [-크-]가 결합된 것이다.

사실 이상까지 살펴본 [-아] 종결형의 출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종결형은 작중인물이 제주도민일 경우에 한한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11	32	13	6	2	3	0	17	0	0	6	90

<표8> 평대 서술법 [-아]의 출현 수

② [-쥬(지우)]

[-쥬]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높임 관계를 따져서 엄격하게 격식이나 예의에 따라 말하기보다는 화자가 청자 사이가 친밀할 경우 일상에서 사용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종결어미 [-우]와 선어말어미 [-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가 [-히지우]의 형태로 쓰이면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형식을 갖추어 정중하게 예의를 차려서 말하는 것이다. [-쥬]는 주로 화자의 확신적인 생각이나 단정적인 표현을 나타내며, 화자가 제2, 3자의 행동과 관련하여 말할 때는 권유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즉 화자가 생각하는 확정적인 내용을 상대방도 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쥬]는 동사, 형용사, '이다'와 결합할 때 앞에 [-아시-]가 놓일 수 있다. [-암시-]는 [-쥬]가 동사와 결합할 때만 쓰인다.

현기영의 작품들에서는 [-쥬]와 더불어 [-쥬]도 같이 혼용하여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둘 사이에 뚜렷한 형태, 음운, 의미론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 수의적이 형태로 보인다. 그런데 본래 이 종결법 형태가 화자와 청자가 친밀한 사이에서 쓰이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제주방언이 쓰인 현기영 소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주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말할 때 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편한 사석에서 사용되는 형태이긴 하되 주로 나이가 많은 상위자의 발화에서 많이 발견되며 하위자의 발화에서는 [-히]이 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 (13) ㄱ. 아이야, 하마 놀라지 말라이. 그 집에 소독하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병을 옮을까 봐서 얼굴을 싸맨 거쥬. (지상의 손가락 하나, 30쪽)
- ㄴ. 난 줄병 군대생활 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것은 견벽청야 작전의 일부 일거라. 쉬운 말로 소개작전이란 거쥬. (순이삼촌, 67쪽)
- ㄷ. 그 하르방이 미국 각시 얻어서 팔자 고친 거쥬. (지상에 손가락 하나, 67쪽)
- ㄹ. 순주도 이젠 제 정신 차렸으니 내달 안으로 고향 내려갈 작정합쥬. (歸還船, 99쪽)

(13ㄱ)은 「지상에 손가락 하나」에서 ‘친할머니’가 주인공인 ‘나’를 안심시키고 있는 장면이다. 얼굴에 천을 두른 사람들이 ‘나’의 친구인 ‘영재’의 집에 몰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며 ‘소독하러 가는 것’임을 ‘단정’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13ㄴ)은 「순이삼촌」에서 ‘고모부’가 주인공인 ‘나’에게 과거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화자인 ‘고모부’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자에서는 [-주]의 형태를, 후자에서는 [-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작품별로 작가의 수의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상에 손가락 하나」와 「바람 타는 섬」에서는 모두 [-주]의 형태를 따랐고, 나머지 단편집 작품들에서는 거의 [-쥬]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

(13ㄷ)에서는 ‘하르방’이 팔자를 고치게 된 연유가 ‘미국 각시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화자의 단정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13ㄱ-ㄷ)은 모두 동사, 형용사, ‘이다’와 [-쥬]가 직접 결합하지 않았다. 즉 용언을 관형격으로 바꾼 후에 /-거쥬/를 이은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거여/와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13ㄹ)에서는 ‘순주’에게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화자의 확신에 찬 생각을 드러냄과 동시에 더 나아가 ‘순주’가 그리기를 권유하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3ㄱ-ㄷ)은 가족들끼리의 대화거나 동네 사람들끼리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쥬]형을 사용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친숙함, 편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13ㄹ)에서는 ‘원삼’이 자신보다 상위자인 누님 ‘진옥’에게 예를 갖추어 말을 하는 것으로, [-ㄷ쥬] 형식을 써서 정중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방언에서 [-쥬]는 보통 용언의 어간에 직접 붙거나, 선어말어미 [-아시-], [-암시-] 뒤에 붙는 경우가 있지만, 소설 내에서는 [-암시-]와 결합된 [-쥬]종결형을 찾을 수 없었다.

(14) ㄱ. 참 착한 아이였주. (지상에 숟가락 하나, 31쪽)

ㄴ. 그 동생이 죽어도 자기가 드러누울 못자리 하나는 잘 잡았쥬.

(순이삼촌, 45쪽)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기영의 소설에서는 [-아시-]의 이형태 /-앗-/을 표준어의 /-였-/으로 표기하고 있다. (14ㄱ)과 (14ㄴ)에서 보이는 ‘아이였주’와 ‘잡았쥬’도 본래는 ‘아이엇주’와 ‘잡앗쥬’라 보아야 할 것이다. (14ㄱ)은 [-쥬]앞에 ‘이다’가 생략된 것이고, (14ㄴ)은 동사 ‘잡다’와 결합되어 있다.

[-쥬] 종결형이 현기영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횟수는 다음과 같이 두 장편 소설과 단편 「순이삼촌」에 치중되어 나타나 있다. 이는 장편에서 작중 인물이 많아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다수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순이삼촌」의 경우는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옛날에 ‘순이 삼촌’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며 주인공에서 이야기 하는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종결형의 출현 수가 잦은 것이라 여겨진다.

지상에 숟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22	22	18	0	1	0	0	1	5	7	2	78

<표9> 평대 서술법 [-쥬]의 출현 수

## 2.2.2. 의문법

### ① [-가]

[-우파]와 [-히네까], [-히데가]형이 화자가 자신보다 높은 청자에게 존대의 의미를 더하여 질문을 하는 의문 종결형이었다면, 화자가 청자를 특별히 높이거나 낮추지 않은 채 질문을 하는 경우의 의문종결어미는 [-가]와 [-고]가 있다. 이 중 [-가]는 청자에 대한 높임의 의미가 없는, 즉 화자가 자신과 비슷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청자에게 질문할 때에 쓰인 형태이다. [-우파]와 [-히네까], [-히데가]가 각각 특징하게 고정된 결합 모습을 보였다면 여기서의 [-가] 종결형은 소설 속에서 대체적으로 다양한 선어말어미와 결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현기영의 작품들 속에서 쓰인 [-가]종결형을 보기 전에 우선 제주 방언에서의 [-가]의 쓰임을 살펴보겠다.

[-가]는 시간상 현재일 때 용언이 동사라면 [-는가]로, 형용사라면 [-(으)ㄴ가]로 나타나며, '이다'와 결합할 때는 [-가] 혹은 [-ㄴ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수가 있다. 만약 용언과 종결어미[-가] 사이에 [-아시-]가 있다면 [-ㄴ가]로 실현된다. 또한 발화문의 용언이 동사, 형용사, '이다'이면서 청자의 추정을 물을 때에는 [-(으)ㄴ까]나 [-(으)ㄴ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형태는 높임의 의미가 없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거나 찬반을 물을 때 사용된다(성낙수, 1992).

현기영의 작품들에서의 [-가]의문형 의미 역시 위와 같이 쓰였으나 실현은 제한된 형태에서만 보인다.

(15) ㄱ. 자진해서 쌀 모아주었다가 냉중에 경찰에서 알민 우린 어떻 되는가.

(순이 삼촌, 69쪽)

ㄴ. 그거야 인력으로 되는 것가. (바람 타는 섬, 254쪽)

ㄷ. 아이고, 잠녀 팔자는 무슨 팔잔가. (바람 타는 섬, 210쪽)

ㄹ. 조캐, 참말 이럴 수가 이싱가? (순이 삼촌, 쪽)

ㅁ. 어휴, 저너러 원수놈, 어떻게 양값음해야 좋으카. (바람 타는 섬, 275쪽)

ㄷ. 예그, 저 더퍼이, 커서 뵈 될러구 저릴까? (바람 타는 섬, 308쪽)

(15ㄱ)은 동사 “되다”와 의문종결어미 [-가]가 결합된 형태이다. ‘마을 주민’이 같은 마을의 ‘폭도’에게 하는 말인데, 시간상 현재이므로, /-는가/로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형태는 일반 제주방언의 그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15ㄴ)은 ‘여옥 어머니’가 ‘두민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팔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다. ‘여옥 어머니’가 ‘두민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지만 같은 마을의 이웃이기 때문에 아예 낮춤 표현이나 격식을 갖춘 표현이 아닌 [-가] 종결법을 사용하였다. 실제 제주 방언에서 ‘이다’와 [-가]종결어미가 결합할 경우 ‘이다’의 [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즉 (15ㄴ)은 원래 “그거야 인력으로 되는 것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가 생략되지 않는다면 (15ㄷ)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ㄴ가/의 형태로 실현된다.

(15ㄷ)에서는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인 ‘-시-’에 ‘ㅇ’이 첨가된 모습을 보이는데, 본 형태는 ‘-이신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5ㄹ)은 ‘영녀’라는 잠녀가 혼잣말로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정한 청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수놈’에게 ‘어떻게 양값음’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는 점에서 이 종결어미가 실현된 듯이 보인다. 여기서는 형용사 ‘좋다’와 [-가] 사이에 매개모음 ‘으’가 나타났으며 이형태 /-카/가 쓰였다.

(15ㄴ) 역시 ‘순옥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보고 하는 발화로, 역시 특정한 청자에게 질문을 던지기 보다는 혼잣말 하는 것에 더 가깝다. 보통 제주방언에서 [-가]의문형은 설명의문문과 관정의문문에 쓰이지만 현기영의 여러 작품들 속에서는 더 다양한 뜻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의문형은 적긴 하지만 비교적 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상에 손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4	5	2	1	3	0	0	5	1	0	2	23

<표10> 평대 의문법 [-가]의 출현 수

② [-고]

종결어미 [-고]도 [-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높임이나 낮춤의 의미 없이 편안한 관계에서 쓰이는 어미이다. 제주방언에서 [-가]가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에 모두 쓰인다면, [-고]형은 설명의문문에만 쓰인다. 실제 제주 방언에서의 [-고] 종결어미의 쓰임은 다음과 같다.

시간성이 현재일 때 '이다'와 결합하면 [이-]가 생략되어 쓰일 수 있으며, 생략되지 않는다면 /-고/로 실현되며, 동사와 결합할 때는 /-는고/,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으)고/로 나타난다. 만약 [-아시-]의 선어말어미가 첨가된다면 /-신고/로, [-암시-]와는 /-엄신고/ 등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현기영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고]의 쓰임도 이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 ㄱ. 아이고, 이거 무슨 불이고? (도령 마루 까마귀, 110쪽)

ㄴ. 등에 업은 애기 누구네 애기고? (지상에 손가락 하나, 196쪽)

ㄷ. 하이고, 이런 쌍놈의 집구석 내가 왜 왔는고. (잃어버린 시절, 26쪽)

ㄹ. 아이고, 내 새끼, 하루만 더 살아 이 밥 먹고 죽은들 내 무사 이리 싫을꼬.  
(아스팔트, 57쪽)

ㅁ. 아이고, 요 고운 것! 요것이 어디서 쫓어나싱고? (지상에 손가락 하나, 82쪽)

ㅂ. 거 누구들고? (바람 타는 섬, 326쪽)

ㅅ. 네가 뭔데, 우리 도아를 때리는 것고? (바람 타는 섬, 348쪽)



- . 그러면 삼촌, 사수 바다는 바람이 잔잔해도 이상하게 파도가 센데 왜 그러는고예? (바람 타는 섬, 92쪽)

(16ㄱ)은 단편소설 「도령 마루 까마귀」의 한 장면으로 '이다'가 생략되지 않은 채 실현된 형태이다. 본래 제주방언대로라면 '아이고, 이거 무슨 불인고?'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다'에 직접 연결된 형태로 보인다. 이는 제주방언의 형태적 제약이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16ㄴ)은 '이다'가 생략된 형태로, 본래는 “등에 업은 애기 누구네 애기인고?”이다. 그런데 본래 제주방언의 경우대로 보면 “애긴고?”가 되어야 하지만 체언 바로 뒤에 [-고]가 결합되었다. 이는 경상도 방언과 유사한 모습이다. 경상도 방언에서의 [-고]는 서술격 조사와만 결합되는 것이 원칙이나, 서술격 조사를 개재시키지 않고 체언에 직접 연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무엇이고' 대신에 '뭐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경북방언에서 볼 수 있는 의문종결어미 [-고]의 예이다.

(17) ㄱ. 이 놈의 새끼들이 이게 무슨 지랄고?

ㄴ. 내가 무슨 죄고?

(김태엽, 2004 : 84에서 발췌)

이러한 경북방언의 형태는 현기영의 소설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

(18) ㄱ. 걸음걸이가 거 뭐꼬? (지상에 순가락 하나, 333쪽)

ㄴ. 날 개량주의자라고,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개량주의'가 뭐꼬!

(바람 타는 섬, 311쪽)

(18ㄱ)과 (18ㄴ)은 모두 제주도 토박이들의 발화인데도 경북방언과 같은 종결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나 [-고]가 '무엇'과 결합할 때에는 항상 /-꼬/의 이형

태를 보인다. 이는 [-고]의 의문종결형이 과거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현 환경적 제약 또한 느슨해졌음을 보여준다.

다시 돌아가서 (16ㄷ)부터 살펴보자. (16ㄷ)은 자신의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을 깨달은 ‘중수 어머니’가 한탄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특별한 청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닌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사 ‘오다’와 /-왔-/ 밑에 [-고]가 붙어서 ‘오-왔-는고’ 즉 ‘왔는고’가 되었다. 제주 방언에서 동사와 [-고]가 붙어 이형태 /-는고/로 실현되는 될 때는 종결어미 앞에 다른 요소가 없을 때이다. 즉 (16ㄷ)의 본 제주방언형은 ‘하이고, 이런 쌍놈의 집구석 내가 왜 와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16ㄷ)은 이러한 경우에 아닌데도 /-는고/로 실현되었다. 이 역시 제주방언의 종결형의 제약이 다른 지역 방언의 영향들로 인해 약해진 결과로 볼 수 있겠다.

(16ㄹ) 역시 (16ㄷ)과 마찬가지로 발화자가 자문자답을 하고 있다. 이 때는 형용사와 [-고]가 합쳐져서 ‘쉽-으-르꼬’가 되었다. 형용사와 [-고]의 결합에서는 매개모음 /-으-/가 삽입되어 /-르꼬/의 변이형으로 실현된다. /-르꼬/의 변이형은 소설 내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16ㄱ)은 동사 ‘쏟아나다’와 시상을 나타내는 [-아시-] 뒤에 [-고]가 이어진 형태이다. 이 때 ‘쏟아나신고’에서 /-르꼬/가 /-으고/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개음 ‘ㄱ’의 영향을 받아 ‘ㄴ’이 ‘ㅇ’으로 동화되는 음성적인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표기법은 아닌 듯 보이지만 오히려 이편이 독자들에게는 더 제주방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제주방언의 ‘어멍’이나 ‘아방’과 같은 어휘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절말에 ‘ㅇ’을 첨가한 형태가 실제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방언에 ‘-옹’, ‘-양/영’, ‘-광’ 등의 ‘ㅇ’이 포함되어 있는 접사를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기영의 소설에서도 ‘ㅇ’이 첨가된 형태 전체에 걸쳐서 많이 분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 ㄱ. 농사철에 하루 놀면, 냉중에 열흘 굶는 법이다.

(지상에 숟가락 하나, 197쪽)

ㄴ. 본처 소박하고 육지년한테 붙은 불한당놈, 대천바당 가운데 들엄 길을 잃고 거꾸러나지라! (지상에 숟가락 하나, 299쪽)

ㄷ. 끝까장 애를 먹이는 것이 곡식이라, (지상에 숟가락 하나, 197-198쪽)

위 (19ㄱ-ㄷ)의 예들을 보면 현기영의 소설에서는 굳이 'ㅇ'이 첨가되지 않아도 될 어휘들에도 'ㅇ'이 첨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ㅇ' 첨가 현상은 소설의 형상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제 제주방언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6ㄴ)은 '누구'뒤의 복수접미사 '-들'에 [-고]가 결합되어 있다.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거기에 누구들이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6ㄷ)에서는 본래 '때리는고'에서 '때리-'에 관형형 어미가 붙고 [-고]종결어미 앞에는 의존명사 '것'이 결합된 모습이다. '때리는고'형보다 의미가 강조된 느낌을 준다. 실제로 소설 내에서 이 발화는 '잠녀'들이 자신의 동료인 '도아'를 때리는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다. 이외에도 /-것고/는 작중화자들이 화를 낼 때, 신세한탄을 할 때 주로 보인다.

(16ㅇ)은 [-고]종결형에 첨사가 붙은 꼴이다.

이러한 [-고]의문형은 소설 내에서 중년층 이상의 성인에서만 나타났지만 [-가]보다는 활발하게 쓰였다.

지상에 숟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9	4	1	3	0	0	0	5	0	0	1	23

<표11> 평대 의문법 [-고]의 출현 수

### 2.2.3. 명령법

제주방언에서 청자와 화자 사이에 높임이나 낮춤 같은 격식을 따지기 보다는 친밀한 상태에서 요구의 의미를 지닌 발화를 할 때에는 종결어미 [-아]를 사용한다. 이 종결어미의 변이 형태에는 /-심/이 있다. /-심/은 나이 많은 부녀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시-]가 [-ㅁ]이 항상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심/은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로 취급해야 한다(성낙수, 1992)

- (20) ㄱ. 야 씨팔, 잘 들어봐. (지상에 손가락 하나, 343쪽)
- ㄴ. 야, 저 닭똥고망 봐! (지상에 손가락 하나, 172쪽)
- ㄷ. 머릿수건 얼른 이리쥬. (바람 타는 섬, 60쪽)
- ㄹ. 엄니, 오빠 봐! (지상에 손가락 하나, 117쪽)
- ㅁ. 맥도 못 짚으면서 침통 들고 넵뜨지 말아! (바람 타는 섬, 282쪽)

(20ㄱ)과 (20ㄴ)은 친구들 사이의 대화이다. (20ㄱ)의 화자는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이 어젯밤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씨팔’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굉장히 허물없는 사이임을 알 수 있다. (20ㄱ)은 보조동사 ‘보다’에 명령형 종결어미 [-아]가 붙어서 ‘봐(←보아)’로 실현되었다.

(20ㄴ)은 ‘닭똥고망’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를 놀리는 장면에서 명령형 발화문으로 동사 ‘보다’에 명령형 종결어미 [-아]가 붙었다. 역시 시제는 현재이며 다른 어미가 붙지 않은 형태이다.

현기영 소설에서 [-아]명령형은 동기 간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반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라면 모두 이 종결형을 사용했다. (20ㄷ)은 땡기머리를 잘랐다고 놀리는 마을의 ‘형들’에게 하는 말로,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아]명령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동사 ‘주다’에 명령형 종결어미 [-아]가 붙어서 ‘쥬(←주어)’로 실현되었다.

(20ㄹ)은 ‘어린 자식’이 자신의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특별한 격식을

차리지 않고 모두 [-아]종결형을 사용했다.

(20口)은 같은 경우는 작중화자가 ‘구로다’라는 갈등인물에게 화를 내는 것인데, 이 때는 예의를 갖추어서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로 격식을 무시한 채 말을 내뱉고 있다. ‘말다’의 어간에 [-아]가 붙어서 ‘말아’가 되었다.

위의 명령형들은 문맥 고려없이 따로 보았을 때는 표준어인지 제주방언인지 확실한 구분이 서지 않는다. 다만 발화자들이 제주 토박인 점이나 ‘넵뜨다’ 등의 제주의 고유방언 어휘 등을 참고로 했을 때 이 형태들이 제주방언으로 인지할 수 있다. 소설 내에서 제주 토박이로 나오는 작중인물의 발화들만 고려했을 때 [-아]명령형은 그다지 활발하게 나타나는 편은 아니었다. 구체적인 분포 수치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상에 손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3	5	0	0	0	0	0	1	0	0	0	9

<표12> 평대 명령법 [-아]의 출현 수

#### 2.2.4. 청유법

제주방언에서 주로 쓰는 종결어미는 [-아]가 있다. 이 형태는 명령법의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아]가 명령법에 쓰였을 때는 그 주어가 2인칭이지만 청유법에 쓰였을 때는 주어가 1인칭 복수라는 점이 다르다. 실제 제주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태로 평대의 청유형이 실현된다.

(21) ㄱ. 우리 밥 먹어.

ㄴ. 집이 가아.

(성낙수, 1992 : 74에서 발췌)

그런데 이 종결형도 명령법과 마찬가지로 따로 떼어놓고 보았을 때는 표준어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소설 내에서는 평대의 청유법 자체가 적을 뿐더러 제주 토박이 가 이 종결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0	0	0	0	0	0	0	0	0	0	0	0

<표13> 평대 청유법 [-아]의 출현 수

## 2.3. 하대 표현

하대 표현은 청자의 자질이 [-높임]일 때 쓰는 표현이다. 즉,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보다 우위에 있을 때 하대 표현을 쓴다.

### 2.3.1. 서술법

제주방언 서술법에서 사용되는 [-높임]의 종결어미는 [-다], [-마], [-라], [-어]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현기영 소설에 두드러지게 실현되는 것은 [-지-]와 결합된 [-어]형과 [-라]가 있다.

① [-저]

[-저]는 선어말어미 [-지-]와 종결어미 [-어]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 [-저]는 화자가 특정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드러낼 때 나타나는데, 대부분 동사, 형용사와 결합을 한다. 화자보다 청자가 아랫사람일 경우에 이 종결형이 쓰인다.

현기영의 소설들에서도 대체로 [-저] 종결형은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개인적으로 편하게 말할 때 쓰였으며, 용언의 어간에 직접적으로 바로 결합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제와 상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를 앞세우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대화뿐만 아니라 단일 화자가 여럿의 청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단순한 화자의 외침에서도 [-저] 종결형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형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발화를 살펴보자.

(22) ㄱ. 마침 잘 만났저. (지상에 순가락 하나, 323쪽)

ㄴ. 아이고, 우리 손주 잘했저. (지상에 순가락 하나, 198쪽)

ㄷ. 자, 이제 그만, 기운들 차리라. 물에 들 시간이 다 되었저.

(바람 타는 섬, 70쪽)

ㄹ. 불이여! 불, 불! 불났저! (도령 마루 까마귀, 111쪽)

(22ㄱ)은 어린 주인공이 동네 아주머니와 만났을 때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실제 제주방언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사 '만나다'와 [-저] 사이에 /-았-/이 아니라 제주방언의 시상형태소인 /-았-/이 들어가야 한다. 즉 '만났저'가 아니라 '만났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에도 역시 앞서 설명한 예들과 마찬가지로 표준어의 영향이 제주방언의 표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22ㄴ)에서는 [-저]와 [-암시-]를 결합하여 한층 더 제주방언 특성을 표현했다. 현기영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형태소/-았-/의 표기는 표준어의 /-았-/으로 바꾸었지만, [-암시-]의 경우에는 그대로 살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형태소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 논

란이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암시-](또는 /-엄시-/)는 비완료상 또는 불완전상으로 이해되며 표준어의 "-고 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sup>4)</sup> 이렇게 본다면 (22ㄴ)은 대략 '우리 손주 잘하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22ㄱ)과 (22ㄴ)은 모두 할머니 또래의 성인 여성이 유소년인 '나'에게 하는 말이다.

(22ㄷ)은 상군 잠녀가 중군, 하군 잠녀들에게 휴식을 끝내고 다시 물질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에서의 발화이다. 이때의 발화는 확인·단정의 의미보다는 화자의 의견을 청자들에게 권유·명령하는 기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때의 화자도 청자들보다는 우위에 있는 인물이다. '되다'와 [-저]가 결합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형태소 /-았-/이 삽입되었다.

[-저] 종결형은 (22ㄷ)과 같이 불특정 다수들에 대한 화자의 외침에도 사용된다. (22ㄷ)은 자신의 집에 불이 난 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발화문에서는 /-여/와 [-저] 두 가지의 종결형이 보인다. /-여/ 종결어미는 체언 뒤 '이다'에 연결되었고 [-저]종결어미는 용언과 연결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확실히 [-저]는 동사와 형용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화자가 불특정 다수의 청자에게 사건을 진술할 때에도 화자의 나이나 신분적 지위에 따라 종결형이 달라지는 것 같다.

(23) ㄱ. 시방 우리 역원 다섯 명이 경찰에 잡혀갔수다! (바람 타는 섬, 373쪽)

ㄴ. 김진구 놈 왔수다! (바람 타는 섬, 311쪽)

(23ㄱ)은 성인 여성 화자인 '도아'의 발화이고, (23ㄴ)은 성인 남성 '만기'의 발

4) 현평효(1974)에서는 '-암/엄-'을 "미완료상"으로, '-암시/엄시-'를 "미완료존속상"으로 따로 구분하였다. 그 밖에 '-암시-'에 대해서는 이남덕(1982)은 "미완료상", 문숙영(1998)은 "미완결상, 우창현(1997)은 "과정상"으로 보았으며 '-아시-'와 대립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고영근(2005) '-암시-'를 "불완전상"의 개념으로 설명했으나 '-아시-'와 대립된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성낙수(1992)에서는 '-시-'를 "존재하-"의 미로 보아서 '-암 시-'를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되어짐(起動)]이 [존재하-]"는 뜻을 가진다고 하였다.



화이다. 이 둘은 모두 20대의 비슷한 연령층의 인물들이다. 이들이 불특정 다수의 화자들에게 발언할 때에는 모두 존대의 서술 종결형 [-우다]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22ㄷ)의 화자는 노년층 여성 화자로, [-높임]의 하대 표현인 [-저]를 사용한다. (22ㄷ)과 (23ㄱ-ㄴ)의 비교는 [-저]가 확실한 하대 표현임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

[-저]의 출현 수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다.

지상에 손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4	4	8	1	0	0	0	3	2	0	2	24

<표14> 하대 서술법 [-저]의 출현 수

## ② [-라]

제주방언의 [-라]종결형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다’나 ‘아니다’와 직접 연결될 때에는 /-라/로 실현되며, 동사와 형용사에 직접 연결될 때에는 /-느니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밖에 [-라]의 이형태로는 /-아라/, /-어/, /-여/ 등이 있다.

‘이다’, 동사, 형용사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그 사이에 [-아시-]가 쓰이면 /-안노라/로, /-크-/가 쓰이면 /-커라/로 실현되며 /-더라/로 나타나서 ‘회상’의 뜻을 더하기도 한다.

현기영의 소설에서의 구체적인 [-라]의 실현은 다음과 같다.

(24) ㄱ. ‘해녀’는 왜말이라. (바람 타는 섬, 70쪽)

ㄴ. 난 말이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지상에 손가락 하나, 45쪽)

(24ㄱ)은 ‘잠녀’의 발화인데, ‘이다’와 직접 연결되어 나타나는 [-라]종결형이 쓰였다.

(24ㄴ)은 어린 주인공인 ‘나’에게 사촌형인 ‘남수’가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아니다’와 [-라]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 (24ㄱ)과 (24ㄴ)은 실제 제주방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형태 그대로 나타난다.

(25) ㄱ. 하여간 다 큰 비바리가 출가가 늦으면 선머슴이 되는 거라.

(바람 타는 섬, 12쪽)

ㄴ. 그러니까 ‘해녀조합’이 아니라 ‘잠녀조합’이라고 해야 옳은 거라.

(바람 타는 섬, 70쪽)

‘이다’, ‘아니다’와 종결어미[-라]가 결합된 종결형과는 달리 현기영의 소설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와 [-라]의 결합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5ㄱ)을 보면 동사 ‘되다’와 [-라]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25ㄴ)도 형용사와 [-라]가 바로 결합되지 않는다. 이 형태는 존대 표현과 평대 표현에서 다른 /-거쥬/, /-것가/ 등처럼 용언 어간에 관형형 어미가 붙고 종결어미 앞에는 의존 명사 ‘것’이 붙은 형태이다. (25ㄱ)과 (25ㄴ)을 본 제주방언대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25) ㄱ. 하여간 다 큰 비바리가 출가가 늦으면 선머슴이 되느니라.

(바람 타는 섬, 12쪽)

ㄴ. 그러니까 ‘해녀조합’이 아니라 ‘잠녀조합’이라고 해야 옳으니라.

(바람 타는 섬, 70쪽)

현기영의 소설에서는 동사와 형용사에 [-라]종결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25ㄱ)과 (25ㄴ)과 같은 형태로만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현대의 제주방언에서 [-

[라]종결형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격식적이고, 청자에 대한 화자의 낮춤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는 (25ㄱ), (25ㄴ)형이 옛 표현에 가깝다면, 확실히 (25ㄱ)과 (25ㄴ)은 더 친근하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26) ㄱ. 에이구, 느네 각시 물허벅깨나 지게 생겼더라. (지상에 숟가락 하나, 222쪽)

ㄴ. 아니라, 난 살 커라. (아스팔트, 54쪽)

ㄷ. 동네 사람들이 날 송보암서라. (순이 삼촌, 15쪽)

ㄹ. 새로 온 민기네 집 식모는 밥 하영 먹는 제주도 할망이엔 소문나서라.

(순이 삼촌, 15쪽)

(26ㄱ)은 [-라]앞에 /-더-/가 붙은 형태로, 화자의 '회상'이 더해졌다. 이 발화는 늙은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를 본 후의 느낀 점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왔다. 좀 전에 본 '며느리'의 모습을 '회상'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라/형이 사용되었다.

(26ㄴ)은 /-커-/와 [-라]종결어미가 합쳐진 형태이다. 제주방언의 /-커-/형태소가 표준어의 /-겠-/과 대응되는 것이라 보면, (26ㄴ)은 '난 살겠다'라는 화자의 의지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6ㄷ)은 '송보다(←홍보다)'와 [-라] 종결형의 결합에 [-암시-]가 함께 쓰여서 '송보-암시-어라'로 실현된다.

(26ㄹ)은 [-라] 앞에 [-아시-]가 쓰인 것으로, '소문-나-아시-어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26ㄱ-ㄹ)에서 보이는 형들은 소설에서 소수만 나타날 뿐이지만 대체로 제주방언의 본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종결형은 현기영 소설에서 꾸준히 사용된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3	10	9	0	0	1	0	0	3	0	4	30

<표15> 하대 서술법 [-라]의 출현 수

### 2.3.2. 의문법

제주방언의 하대의 의문 종결형은 [-냐]와 [-리] 등이 있으며 이 두 가지 형태는 현기영 소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 ① [-냐]

[-냐]는 청자가 화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경우 의문법에서 쓰이는 종결형이다. 종결형 [-냐]는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의 변이형태를 가진다. 시간성이 현재, 즉 [-냐] 앞에 아무런 문법형태소가 없이 동사와 결합할 때는 /-느냐/로 나타난다. 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느냐/ 또는 /-냐/로 보이며 '이다'와 결합할 경우에도 역시 /-냐/로 나타난다. [-냐]가 선어말어미 [-아시-]와 만나면 /-니냐/로, [-암시-]와 결합하면 /-궤시냐/로, [-크-]와 결합하면 /-커냐/ 혹은 /-크냐/로 나타난다. 또한 [-더-]와 붙어서 /-더냐/로 보이기도 하며, 형용사와 '이다'와 결합하면서 청자의 '회상'을 묻는 경우에는 /-궤러냐/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냐]종결어미는 '설명의원문'과 '찬반의원문'에 두루 쓰인다.

그러나 [-냐]의 변이형태로 볼 수 있는 /-니/ 혹은 /-닌/이 붙은 의문문은 항상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원문'에서만 쓰일 수 있다. 특히 /-다/, /-디(ㄴ)/은 항상 동사와 결합하며 주어가 2인칭일 때만 쓰일 수 있는 독특한 종결어미다. [-암시-]와 결합한 /-암다/, /-암디(ㄴ)/, /-앗-/과 결합한 /-안다/, /-안디(ㄴ)/

의 이형태가 있으며 청자의 추정을 묻는 경우엔 /-르다/, /-르디(ㄴ)/으로도 나타난다.

현기영의 소설 작품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형태는 [-냐]와 그의 이형태인 /-니/가 있다. 특히 [-냐] 종결형은 제주방언만의 특이한 요소인 /-아시-, -암시-/와 /-크-/와 같이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더 제주방언만의 특이성을 도드라지게 보여주었다.

(27) ㄱ. 너두 어리다고 놀면 되느냐, 농사철엔 아무도 놀지 못한다. 다들 일해사주.

(지상에 숟가락 하나, 197쪽)

ㄴ. 느네 아방이 도망갔는데, 난 도망 못 갈 것 같으냐.

(지상에 숟가락 하나, 300쪽)

ㄷ. 이 나쁜 놈아, 넌 어딴 백성이냐? (바람 타는 섬, 289쪽)

ㄹ. 느네 어명이라도 죽어시냐? (지상에 숟가락 하나, 215쪽)

ㅁ. 아니, 깡아, 너 그 짜디짤 것 처먹고 창자 속에 젓 담그젠 햄시냐?

(지상에 숟가락 하나, 117쪽)

ㅂ. 씨억 돌아왔지 못하크냐? (지상에 숟가락 하나, 80쪽)

ㅅ. 설마 어린것들을 죽이기야 하겠느냐. (지상에 숟가락 하나, 54쪽)

ㅇ. 이눔아, 눈깔은 보리동냥 보냈더냐, 비싼 손거울 뵈아 깨게! 응?

(바람 타는 섬, 308쪽)

(27ㄱ)에서부터 (27ㅇ)까지는 모두 어머니, 혹은 할머니의 발화이다. (27ㄱ)은 주인공의 '외할머니'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이다. 시간상 현재이면서 동사 '되다'와 종결어미 [-냐]가 결합한 형태로 [-냐]의 이형태인 /-느냐/로 나타나고 있다.

(27ㄴ)은 시간상 현재이면서 형용사 '같다'와 [-냐]가 결합한 발화문인데 본래대로 라면 '난 도망 못 갈 것 같느냐'처럼 /-느냐/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으냐/로 나타나고 있다.

(27ㄷ)은 시간상 현재이면서 '-이다'와 [-냐]가 결합된 경우이다.

그런데 (27ㄱ-ㄷ)에서 본 [-냐] 종결형은 우리가 흔히 ‘해라체’라고 하는 표준어의 의문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표준어의 ‘해라체’에 해당하는 의문형종결어미도 환경에 따라 몇 가지의 이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통 동사의 어간과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 , /-겠-/과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아래에서 /-느냐/가,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어간 아래에서는 /-으나 / , 모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어간과 ‘이다/아니다’의 어간 아래에서는 /-냐/로 실현된다.

(27ㄴ)에서 나타나는 ‘-같으나’의 경우 정확히 말하자면 표준어의 종결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발화를 하고 있는 작중인물이 제주도 토박이라는 점과 아버지를 뜻하는 ‘아방’이라는 어휘가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마치 제주도 방언인 듯한 느낌을 독자들에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위의 예들보다는 제주 방언의 선어말어미인 [-아시-]나 [-암시-], [-크-] 아래에서 함께 나타나는 [-냐]가 조금 더 현기영 소설의 배경을 뚜렷하게 해준다.

(27ㄹ)은 주인공의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인데 동사 ‘죽다’와 [-아시-]가 [-냐]와 결합되어 ‘죽-어시-냐’로 실현된 모습을 보여준다.

(27ㅁ)도 동사 ‘하다’와 [-암시-]가 [-냐]와 결합하여 ‘하-암시-냐’ 즉 ‘햄시냐’로 나타났다.

(27ㄷ) 역시 ‘나’에 대한 ‘어머니’의 발화인데 ‘못하다’와 선어말어미 [-크-]가 [-냐]와 결합되어 ‘못하-크-냐’가 되었다. 이들은 소설의 배경이나 작중인물의 출신지역을 고려하지 않고도 독자들에게 이 발화가 제주방언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크-]는 제주방언에서 논의의 여지가 많은 형태소이다. 대체로 동사류 어간과 연결되어 서술문에서는 화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의지를 나타내고 의문문에서는 동작주체의 의도, 가능성을 가늠하며(오창명, 2000), 표준어의 /-겠-/에 상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27ㄷ)을 표준어로 바꾸어 보면 ‘씩 돌아왔지 못하겠느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7ㅂ)을 보면 [-크-]대신에 /-겠-/이 나타나 있다. 이는 「지상의 순가락 하나」에서 나오는 제주토박이인 ‘계성 어머니’가 ‘계성’에게 하는 발화이다.

이 발화를 본래 제주방언대로 해보면 ‘하겠느냐’ 보다는 ‘하크냐’ 정도가 더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작중인물이 /-크냐/ 대신에 /-겠(느)냐/로 말하는 경우가 현기영 소설에서는 종종 보인다.

(27○)은 동사 ‘보내다’와 선어말어미 /-더-/ , /-았-/에 [-냐]가 결합되어서 ‘보내-쓰-더-냐’로 실현되었다.

(28ㄱ) ㄱ. 느 아방 어디 가시니? (잃어버린 시절, 32쪽)

ㄴ. 날 버려 두영 어딜 감시니? (해룡이야기, 126쪽)

ㄷ. 왜들 그러고 앓아시니? (바람 타는 섬, 21쪽)

ㄹ. 아니, 무사 대답 안 험시니? (지상에 손가락 하나, 323쪽)

[-냐]의문형이 여러 의문문에서 두루두루 쓰인다면 /-니/의문형은 항상 의문사와 함께 나타난다. 이 /-니/ 역시 [-냐]와 마찬가지로 표준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의문형 종결어미 중 하나이다. 표준어에서 /-니/는 /-겠-/ , /-았-/과 결합되어 /-겠니/ 또는 /-았니/ 등의 형태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더냐/는 되지만 /-더니/는 쓰이지 못한다. [-냐]의문문이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니/가 붙은 의문문은 서로 같은 연배의 친구들과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어감도 더 부드럽고 친숙한 느낌을 준다.

현기영의 작품에서 /-니/의문형은 [-냐]의문형보다는 비교적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지만 제주 방언의 선어말어미인 [-아시-], [-암시-] 등과 대체로 함께 나타나 소설의 배경을 확실하게 해주었다.

(28ㄱ)은 같은 민보단에 속해 있지만 친분은 없는 ‘어른들’이 어린 ‘종수’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다. 동사 ‘가다’와 선어말어미 [-아시-]에 /-니/가 쓰여서 ‘가-아시-니’로 실현되었다. 이 때 의문사 ‘어디’가 함께 쓰였다.

(28ㄴ)은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외치는 말인데, 역시 동사 ‘가다’와 선어말어미 [-암시-] 아래에 /-니/가 붙어서 ‘가-암시-니’가 되었으며 의문사는 ‘어디’와 공기한다. (28ㄷ)은 의문사 ‘왜’와 공기하는 발화문으로 ‘여옥’이 그녀의 ‘친구

들'에게 묻는 장면에서 나온 말이다. 동사 '앉다'와 선어말어미 [-아시-], 그리고 종결어미 /-니/가 합쳐져서 '앉-아시-니'로 실현되었다.

(28ㄷ)은 어린 주인공과 한 마을에 사는 '신석 할머니'가 '나'에게 묻는 말로 의문사 '무사'와 공기하였으며 '-하다', 선어말어미 [-암시-] 아래에 /-니/가 결합해서 '하-암시-니' 즉 '햄시니'가 된 것이다.

여기서 살펴본 제주방언의 /-니/는 표준어의 /-니/처럼 동년배들 사이의 친근함을 보이는 의문종결어미와는 다르다. (17ㄱ-ㄷ)의 청자와 화자 사이는 '낯선 어른들'과 '아이'에서부터 친한 '친구'사이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항상 의문사와 공기하여 나타나므로 /-니/가 있는 의문문은 항상 설명의문문 형식을 취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냐]종결형은 현기영의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주로 중년 이상의 여성의 발화에서 많이 발견된 [-냐]는 여성 화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현기영의 장편소설에서 많이 보였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22	9	1	0	3	0	0	6	1	0	0	42

<표16> 하대 의문법 [-냐]의 출현 수

## ② [-리]

제주방언의 [-리]는 /-랴/의 이형태를 가지며 화자의 독백에서 많이 보인다. 즉 청자가 1인칭인 것이다. 스스로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어보는 형

5) '왜'의 제주방언.



식을 취하므로 [-암시-]나 [-아시-]등의 시상형태소의 결합은 없다. 동사, 형용사 등과 고루 연결된다.

[-리]가 사용된 의문법은 현기영 소설에서 단 두 차례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29) ㄱ. 날 아니 낳으면 내가 왜 이 고생하리. (바람 타는 섬, 70쪽)

ㄴ. 하이고, 언제면 이런저런 더러운 꼴 안 보고 살아가리.

(바람 타는 섬, 275쪽)

(29ㄱ-ㄴ)의 예들은 모두 여성 화자의 발화로, 잡녀의 고달픈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리]종결어미가 사용된 의문형이 적은 이유는, 이 형태가 옛 국어의 모습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소설에서 독백을 하는 의문법 [-리]종결형 보다는 [-고] 종결형이 더 많이 사용된 양상을 볼 수 있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0	2	0	0	0	0	0	0	0	0	0	2

<표17> 하대 의문법 [-리]의 출현 수

### 2.3.3. 명령법

제주방언의 대표적인 하대 명령법의 종결형은 [-라]이며, 이 종결형은 현기영의 소설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실현된다. [-라] 뒤에 수의적으로 [-게]가 붙을 수 있지만 소설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현기영의 소설에서 [-라]가 쓰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 (30) ㄱ. 썩 그치라! (지상에 손가락 하나, 52쪽)  
 ㄴ. 아이고, 중호야, 날 살려 도라. (해룡이야기, 126쪽)  
 ㄷ. 현 이는 돌아가고 새 이는 돌아오라. (지상에 손가락 하나, 274쪽)  
 ㄹ. 거짓말, 내 말리지 않을 테니까, 갈 테면 가라, 이 불쌍한 어멍 내버리꼭, 느네 아방한테, 그 육지년한테 강 살라. (지상에 손가락 하나, 300쪽)  
 ㅁ. 느네 아방도 바로 그렇게 죽은 거여, 잊어볼지 말고 꼭 그렇게 대답하라이.  
 (잃어버린 시절, 30쪽)

(30ㄱ)은 울음을 그치라고 호통 치는 주인공의 ‘외할아버지’의 발화이다. 동사 ‘그치다’와 [-라]가 결합된 것으로 표준어로 읊겼을 때는 ‘그쳐라’ 혹은 ‘그치어라’ 정도가 된다.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높임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30ㄴ)은 ‘날 살려 다오’라고 쓸 수도 있지만 제주방언에서는 ‘다오’ 보다는 ‘도라’가 더 많이 쓰이며 현기영의 소설에서도 후자의 비율이 더 높다.

(30ㄷ)의 ‘돌아오라’는 ‘돌아오거라’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준어에서 보면 ‘해라체’에서는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사 ‘오다’와 ‘오다’ 합성동사류에서는 /-너라/의 변이형태를 사용해서 명령문을 만든다.

(31) 너는 지금 당장 돌아오거라.

그러나 제주방언에서는 이와 같은 변이형 없이 [-라]형이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것은 동사 ‘가다’와의 결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라체’에서 보면 ‘갈 테면 가거라.’가 되었겠지만 (30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사 어간에 그대로 [-라]가 결합되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ㄹ)에서도 ‘살다’의 어간에 바로 종결어미 [-라]가 결합되어 있다. 현기영의 소설 작품들을 통해 보았을 때 제주방언의 명령형 종결어미 [-라]는 동사 어간

뒤에 바로 붙으며 시간상으로는 항상 현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기영 소설에서는 (30口)의 경우와 같이 명령형 어미 뒤에 첩사 [-이]가 붙는 경우도 있었다. 이 첩사는 동위자 및 하위자에게 사용되는 명령·서술·권유 문 다음에 붙어 ‘다짐’의 뜻을 더해준다(강정희 1976). ‘중수’의 ‘어머니’가 어린 ‘중수’에게 ‘아버지가 폭도들의 창에 맞아 죽었다’고 대답하기를 다짐받고 있는 장면에서 첩사[-이]가 붙었다.

(30ㄱ-口)의 화자는 모두 청자보다 상위자이며 높임의 의미 없이 청자에게 강압적으로, 혹은 재촉의 의미를 더하여 특정한 일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소설에서 보이는 [-라]의 출현은 꽤 활발하며 전체적인 작품에서 고루 보이는 경향을 띠고 있다.

지상에 손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30	16	2	1	4	0	0	7	4	1	2	66

<표18> 하대 명령법 [-라]의 출현 수

### 2.3.4. 청유법

제주방언 하대 청유 종결형은 [-자], [-게]가 있고, 이들은 현기영의 소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32) ㄱ. 순주야, 그러지 말고, 나하고 일본 가자. (바람 타는 섬, 22쪽)

ㄴ. 자, 동문 열려 먼통 텃으니, 영등신을 청해 부르자. (바람 타는섬, 7쪽)

ㄷ. 우리 같이 죽어볼자. (아스팔트, 54쪽)

(32ㄱ)은 동사 ‘가다’와 청유 종결어미 [-자]가 결합된 형태이다. 이 종결형은 소설 안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 본다면 제주방언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다.

(32ㄴ)도 (32ㄱ)과 마찬가지로인데, 이 때의 발화는 제주의 ‘영등신’께 제를 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32ㄱ)은 친밀한 사이인 두 남녀의 대화에서 살필 수 있었으므로 비격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32ㄴ)은 공식적이고 자리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격식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즉 [-자]는 격식·비격식의 의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사용되는 종결형임을 알 수 있다.

(32ㄷ)은 ‘죽어버리자’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단순한 ‘죽자’보다 더욱 강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이 종결형의 출현 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지상에 손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린 시절	아스 팔트	길	귀환선	
3	0	0	0	0	0	0	0	1	0	1	4

<표19> 하대 청유법 [-자]의 출현 수

### 3.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제주방언을 주로 종결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종결법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현기영의 소설에서의 제주방언 형태는 주로 대화문의 종결법에서 두드러지게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종결형을 화자의 입장에서 본 청자의 자질에 따라 '존대 표현·평대 표현·하대 표현'으로 구분한 후에 그 안에서 각각 '서술법·의문법·명령법·청유법'으로 세분하여 방언을 분석했다. 존대 표현은 청자에 대한 [+높임]의 자질을 가지며, 하대 표현은 [-높임]의 자질을 가진다. 평대 표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는 상태의 표현을 말하며 주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보인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기영 소설에서 나타나는 존대 표현 서술법에는 [-우다], [-하네다]가 있었다. 이중에서 [-우다]가 폭넓게 사용되어 제주방언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존대 의문법에서는 [-파], [-까], [-가]형이 활발하게 실현되었는데, 각각은 음운론적인 연유로 인하여 [-우파], [-하네까], [-하데가]의 고정된 형태로 실현되었다.

존대 명령법에서 보이는 [-하서]는 원래 알려진 제주방언 형태와는 다르게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된 [-하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최근의 제주방언이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기영 소설에서는 제주방언 고유의 존대 청유법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하시다]가 한 번 나타났을 뿐이다.

평대 서술 종결형으로는 [-아]와 [-쥬]가 쓰였는데, 둘은 모두 소설 내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특히 [-쥬]의 경우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실현되었으며,

화자의 나이가 청자보다 어릴 경우 [-히쥬]로 나타나기도 했다.

평대 의문 종결형에서는 [-가]와 [-고]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형태들 중에서 [-고]는 경상도 방언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는데, 이는 제주방언에 다른 방언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명령법과 청유법의 평대 종결형은 모두 [-아]가 나타났다. 둘의 형태는 같지만 청자가 1인칭 복수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명령과 청유가 갈라진다.

[-높임]의 자질값을 가진 하대 표현 중 서술법에는 [-저]와 [-라]를 사용한 종결형이 많이 보인다. 특히 [-저]종결형은 [-아시-]나 [-암시-]등의 제주방언 형태소와 결합되어서 소설의 배경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의문법에서는 [-냐]가 자주 보였다. 이 종결형은 변이형태 /-니/로 실현되었을 때 독특한 양상을 보이며 제주방언의 특색을 부각했다. /-니/는 항상 의문사와 공기했으며, ‘어디 감시니?’, ‘어디이시니’와 같이 제주방언 고유의 형태소와 결합되었을 때에만 나타났다. 하대 의문 종결형으로 [-리] 역시 나타났으나 이 형은 주로 화자의 독백에서 많이 쓰였으며 [-냐] 보다는 적은 빈도수를 보였다.

명령법에서 보이는 [-라]와 청유법의 [-자]는 전체적인 문맥, 작중인물의 출신을 고려했을 때에만 제주방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방언의 여러 종결형 중에서 현기영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출현 수를 보이는 것은 존대 서술 [-우다]였다. 그 이유는 앞서 자세히 상술했 바와 같다. 현기영 소설에서 확인한 다른 종결형의 총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바람 타는 섬	단편집 <순이삼촌>			단편집<마지막 테우리>		단편집<아스팔트>			계	
					순이 삼촌	도령 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잃어버 린시절	아스 팔트	길		귀 환 선
존 대 표	서술	-우다	11	61	12	2	2	3	5	6	12	6	1	121
		-네다	3	26	0	0	0	0	0	1	0	3	1	34
	의문	-우파	2	20	10	1	1	3	0	0	7	2	5	51

현	명령	-네까	0	7	0	0	0	0	0	0	1	3	0	11
		-네타	0	0	6	0	0	1	0	0	1	1	0	9
	청유	-네 서	11	46	7	1	0	6	5	4	6	6	2	94
		-네시다	0	1	0	0	0	0	0	0	0	0	0	1
평대표현	서술	-아	11	32	13	6	2	3	0	17	0	0	6	90
		-जू	22	22	18	0	1	0	0	1	5	7	2	78
	의문	-가	4	5	2	1	3	0	0	5	1	0	2	23
		-고	9	4	1	3	0	0	0	5	0	0	1	23
	명령	-아	3	5	0	0	0	0	0	1	0	0	0	9
		-아	0	0	0	0	0	0	0	0	0	0	0	0
하대표현	서술	-저	4	4	8	1	0	0	0	3	2	0	2	24
		-라	3	10	9	0	0	1	0	0	3	0	4	30
	의문	-냐	22	9	1	0	3	0	0	6	1	0	0	42
		-리	0	2	0	0	0	0	0	0	0	0	0	2
	명령	-라	30	16	2	1	4	0	0	7	4	1	2	66
		-자	3	0	0	0	0	0	0	0	1	0	1	4

<표20> 현기영 소설 종결형의 출현 수

문학과 방언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유독 문학 내의 제주 방언 연구가 전무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제주방언이 점점 표준어와 기타 방언의 영향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제주방언의 실현형태를 확인하고 더불어 제주방언이 사용된 소설을 세밀하게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소설 속에서 방언이 출현하는 문맥, 배경 등을 고려하여 본 방언의 의미를 꼼꼼하게 파악하고자 하였고, 실제 방언 화자들이 현재에는 어떠한 형태의 변형된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보하고자 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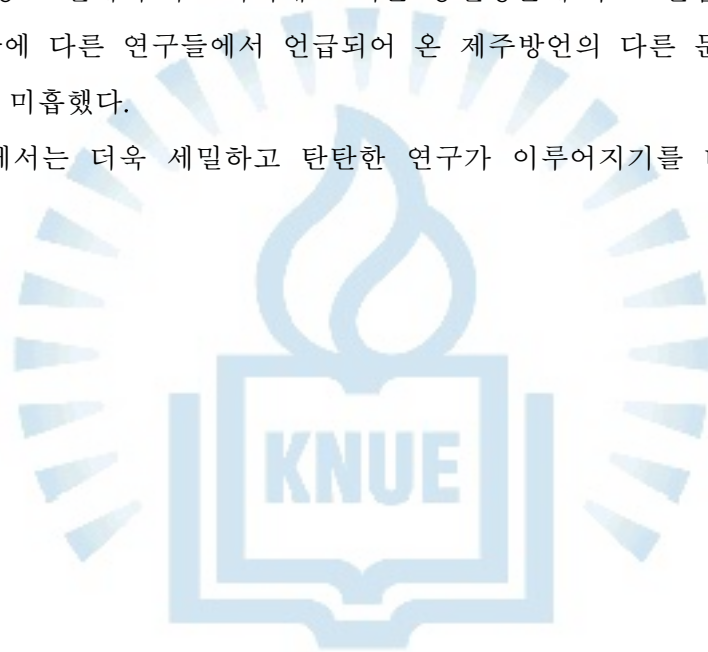
첫째는 연구자가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토박이 화자가 아니고, 또한 방언을 분석하는 능숙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기영 소설의 제주방언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를 많이 참고했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논의가 영성한 점이 많은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

둘째,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폭넓은 논의가 부족한 점이다. 현기영의

소설에 나타난 제주방언을 분석하면서 다른 문학에서 등장하는 제주방언 형태 자료를 함께 덧붙였더라면 객관적으로 좀더 타당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방언의 종결형에 집중하다보니 제주방언의 논쟁거리 중 하나인 [-아시-], [-암시-] 등에 대한 설명이 다소 허술했던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다양한 종결법의 형태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아시-]나 [-암시-] 등의 언급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기엔 전체적인 연구의 초점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본 연구자의 부족함이 컸다.

셋째, 현기영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종결형들에 주로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연구들에서 언급되어 온 제주방언의 다른 문장종결형들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

후에 연구에서는 더욱 세밀하고 탄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본고를 마무리한다.





## <참고문헌>

### 가. 기본자료

- 현기영(1979), 「순이삼촌」, 서울 : 창작과비평사.  
\_\_\_\_\_(1983), 「변방에 우짖는 새」, 서울 : 창작과비평사.  
\_\_\_\_\_(1986), 「아스팔트」, 서울 : 창작과비평사.  
\_\_\_\_\_(1989), 「바람타는 섬」, 서울 : 창작과비평사.  
\_\_\_\_\_(1994), 「마지막 테우리」, 서울 : 창작과비평사.  
\_\_\_\_\_(1999), 「지상에 손가락 하나」, 서울 : 실천문학사.

### 나. 단행본

- 김석득(1994), 「우리말 형태론」, 서울 : 탑출판사.  
박창해(1991), 「한국어 구조론 연구 1·2·3 합본」, 서울 : 탑출판사.  
성낙수(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서울 : 계명문화사.  
이기문 외(2001), 「문학과 방언」, 서울 : 역락

### 다. 논문

- 강근보(1972), “濟州道方言 「있다」活用考,” 논문집4, 제주 : 제주대학교.  
\_\_\_\_\_(1977), “濟州道方言의 接尾辭 研究,” 논문집9, 제주 : 제주대학교.  
\_\_\_\_\_(1978), “濟州道方言의 曲用에 대하여,” 논문집10, 제주 : 제주대학교.  
\_\_\_\_\_(1983), “제주도방언의 후음,” 탐라문화2, 제주 : 탐라문화연구소.  
강영봉(1986ㄱ), “제주도 방언의 식물이름 연구,” 탐라문화5, 제주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_\_\_\_\_(1986ㄴ), “濟州道方言의 魚名 研究,” 논문집16, 제주 : 제주대학교.  
\_\_\_\_\_(1994),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 박사학위 논문, 수원 : 경기대학교 대학원.  
\_\_\_\_\_(1995), “제주도방언의 접두사,” 국문학보13, 제주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강정희(1976), “제주 방언의 동사류 접미사 연구 : 종지법의 굴절 접미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_\_\_\_\_(1977), “제주방언의 동사류 접미사 연구 - 종지법의 굴절접사 형태소 분석을 중심으로 -,”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_\_\_\_\_(1978), “제주 方言의 時相연구 - 접속접미사 -단/-당, -안(언)/-양(영)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2, 서울 : 이화어문학회.  
\_\_\_\_\_(1981), “제주방언의 인용문 연구 - 피인용문의 문장어미를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4, 서울 : 이화어문학회.  
\_\_\_\_\_(1982), “제주방언의 상태동사의 동작화 과정에 대하여,” 이화어문논집5, 서울 : 이화어문학회.  
\_\_\_\_\_(1983), “제주방언의 명사류 접미사에 관한 연구 : 격표시와 명사구 확정접미사의 통사,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_\_\_\_\_ (1987), “제주 방언의 명사류어미의 한 종류 ‘-(이)랑’에 대하여,” *한남어문학*13, 대전 : 한남어문학회.
- \_\_\_\_\_ (1987), “제주방언의 접속어미와 동작상어미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국어학*16, 서울 : 국어학회.
- \_\_\_\_\_ (1994), “방언 분화에 의한 형태 분화 - 제주 방언의 ‘-이랑’과 ‘-으란’을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13, 서울 : 이화어문학회.
- \_\_\_\_\_ (2001), “제주방언의 ‘-아/-어지다’ 구문연구,” *한남어문학*25, 대전 : 한남어문학회.
- \_\_\_\_\_ (2004), “제주방언의 시간 표현 구조 - ‘글지후제’의 형태변화 과정에 대해서 -,” *어문연구*45, 대전 : 어문연구학회.
- \_\_\_\_\_ (2006), “제주방언의 인식양태 표현,” *한국언어문학*59, 전주 : 한국언어문학회.
- \_\_\_\_\_ (2008), “제주방언 동명사 구문의 문법화 연구,” *어문연구*57, 대전 : 어문연구학회.
- \_\_\_\_\_ (2009), “제주방언의 보조동사 ‘-불다’에 관한 형태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68, 전주 : 한국언어문학회.
- 강호정(2008), “해방기 시에 나타난 외래어와 방언/토속어의 의미 연구,” *한국문예비평연* 25, 서울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강희숙(2003), “김용택 시어의 방언 문법론,” *우리말 글*28, 대구 : 우리말글학회.
- \_\_\_\_\_ (2004), “백석의 시어와 구개음화,” *한국언어문학*53, 전주 : 한국언어문학회.
- 고동호(1995), “제주 방언의 움라우트 연구,” *언어학*17, 청원 : 한국언어학회.
- \_\_\_\_\_ (1997), “제주 방언의 모음 조화 연구,” *언어* 21, 청원 : 한국언어학회.
- \_\_\_\_\_ (1997),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언어학*13, 청원 : 한국언어학회.
- \_\_\_\_\_ (2008), “제주방언 ”·“의 세대별 변화 양상,” *한국언어문학*65, 전주 : 한국언어문학회.
- 고미숙(2005), “제주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 연구,” *언어과학연구*34, 구미 : 언어과학회.
- 고영림(2006), “일반 논문 : 현대제주방언 단모음이 음향음성학적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화*30, 서울 : 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09), “일반논문 : 제주 방언의 대화체 담화에 나타난 억양 연구 - 70대 이상 고령 화자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40, 서울 : 한국언어문화학회.
- 고영진(2002),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법의 형태론,” *한글*256, 서울 : 한글학회.
- \_\_\_\_\_ (2003),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의 형태론 - 이른바 “ㅎ라체”를 중심으로,” *한글*262, 서울 : 한글학회.
- \_\_\_\_\_ (2007), “제주도 방언의 형용사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재 시제」에 대하여,” *한글* 275, 서울 : 한글학회.
- \_\_\_\_\_ (200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상 범주의 체계화를 위하여,” *한글*280, 서울 : 한글학회.
- 고창근(2001), “제주도 방언 ‘나다, ‘지다’에 대하여,” *백록어문*17, 제주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 고형진(2004), “방언의 시적 수용과 미학적 기능,” *동방학지*125, 서울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김경훈(1998), “시제, 상, 서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고찰 - 제주 방언 時相 형태를 중심으로 -,” *개신어문연구*15, 청주 : 개신어문학회.

- 김동우(2010), “현대시의 방언과 공간적 상상력,” 한국시학연구28, 서울 : 한국시학회.
- 김동윤(1997), “현대소설의 제주도방언 수용 양상과 그 과제,” 탐라문화17, 제주 :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2000), “제주도방언의 문학적 활용 방안,” 탐라문화21, 제주 :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2003),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 방식 -현기영의 「순이삼촌」론-,” 탐라문화23, 제주 : 탐라문화연구소.
- 김미정(2010), “제주도 방언의 친족어휘 고찰”, 석사학위 논문, 청주 : 충북대학교 대학원.
- 김보경(1996), “서부경남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 소설(토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수원 : 아주대학교 대학원.
- 김승중(1998), “소설의 리얼리티와 방언의 효과,” 현대소설연구8, 수원 : 한국현대소설학회.
- 김승태(1972), “濟州道 方言의 語尾 活用に 대해서,” 국문학보4, 제주 :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 김신영(2008), “현기영 소설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상명대학교 대학원.
- 김영돈(1956), “제주 방언의 어미 활용(1),” 한글119, 서울 : 한글학회.
- \_\_\_\_\_ (1957), “제주 방언의 어미 활용(2),” 한글122, 서울 : 한글학회.
- \_\_\_\_\_ (1957), “제주 방언의 어미 활용(3,완),” 한글122, 서울 : 한글학회.
- 김영진(2009), “요산 소설 <뒷기미 나무>에 반영된 방언의 특징”, 석사학위 논문, 부산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직(1996), “方言과 한국문학,” 새국어생활6,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 김완진(1996), 「문학과 언어의 만남」, 서울 : 신구문화사
- 김영화(1995), “특집(特輯) : 제주문학(濟州文學)의 정립(定立) ; 현대문학(現代文學)과 제주문학(濟州文學),” 탐라문화15, 제주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원보 외(2007),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이중모음의 음향분석과 이중모음체계,” 음성과학14, 한국음성과학회.
- \_\_\_\_\_ (1999), “제주방언에서의 동사어미 -an/an교체현상,” 음성·음운·형태론 연구5, 서울 : 한국음운론학회.
- \_\_\_\_\_ (2005-1), “제주방언 이중모음 음향분석,” 음성과학 12, 한국음성과학회.
- \_\_\_\_\_ (2005-2), “제주방언에서 [·]음의 음향분석,” 언어과학연구33, 구미 : 언어과학회.
- \_\_\_\_\_ (2006), “제주방언화자의 세대별(20대, 50대, 70대) 단모음의 음향분석과 모음체계,” 언어과학연구39, 구미 : 언어과학회.
- 김은아(2005),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 과 현기영의 「순이삼촌」 에 나타난 '4·3'기억의 재현 비교,” 국제한인문학연구, 국제한인문학회.
- 김은진(2009), “오영수 소설 「화산택이」 의 텍스트 분석과 방언”, 석사학위 논문, 부산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중훈(2006), “제주방언 단모음과 현대국어 단모음의 음향 분석 비교,” 언어연구21, 대전 : 한국현대언어학회.
- 김태엽(2004), “현진건 소설에 나타난 경북 방언(1),” 語文研究45, 서울 : 어문연구학회.
- \_\_\_\_\_ (2005), “현진건 소설에 나타난 경북 방언의 어휘,” 우리말 글35, 대구 : 우리말글학회.

- \_\_\_\_\_ (2006ㄱ), “김동리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 *우리말 글*38, 대구 : 우리말글학회
- \_\_\_\_\_ (2006ㄴ), “현진건 소설의 방언 연구,” *국어국문학*142, 서울 : 국어국문학회.
- \_\_\_\_\_ (2008), “백신에 소설에 나타나는 경북 방언,” *우리말 글* 44, 대구 : 우리말글학회.
- 김홍식(1983), “제주도방언의 접미사 고 - 인칭접미사를 중심으로,” *탐라문화*2, 제주 : 탐라문화연구소.
- 김홍수(1985), “소설의 방언에 대하여,” *국어문학*25, 완주 : 국어문학회.
- 노문희(2011), “이문구 소설의 세계관과 충남 방언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 :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종상(2000), “『까마귀의 죽음』과 『순이(順伊)삼촌』의 대비고찰,” *한성어문학회*19, 서울 : 한성어문학회.
- \_\_\_\_\_ (2010), “4.3 사건의 문학적 형상화와 ”심정 거리(psychic distance)“ - 현기영의 <순이삼촌>과 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79, 대전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문순덕(1997ㄱ), “제주방언의 지정사 부정 표현,” *국문학보*14, 제주 :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
- \_\_\_\_\_ (1997ㄴ), “제주 방언 부정 응답 구문,” *탐라문화*18, 제주 :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1998), “제주 방언 ‘말다’의 의미 기능,” *탐라문화*19, 제주 :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1999), “제주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박사학위 논문, 제주 : 제주대학교 대학원.
- \_\_\_\_\_ (2000), “제주 방언의 보조용언 연구,” *탐라문화*21, 제주 :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2005), “제주 방언의 간투 표현,” *한글*269, 서울 : 한국학회.
- \_\_\_\_\_ (2005), “제주방언 높임말 첨사의 담화 기능 - “마쌈, 양, 예“를 중심으로 -,” *언어연구*20, 대전 : 한국현대언어학회.
- 박동원(2009), “정지용 시어 연구 : 방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청원 : 한국교원대학교.
- 박미선(2009), “4.3 소설의 서술 시점 연구 : 현기영과 현길언의 작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 배은지(2006), “백석 시 연구 : 방언과 음식어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란화(2010), “백석 시의 방언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숭실대학교 대학원.
- 성낙수(1975ㄱ), “교육어의 ‘말입니다’, ‘요’와 제주도 방언{massim}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6, 서울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_\_\_\_\_ (1975ㄴ), “濟州道 方言의 統辭論的 研究,” *국어국문학*, 서울 : 국어국문학회.
- \_\_\_\_\_ (1980), “濟州道 方言의 間接引用文 研究,” *어문집*9, 청주 : 서원대학교.
- \_\_\_\_\_ (1982), “제주도 방언의 접속사 [nan], [an]연구,” *한국학연구*1, 서울 : 동덕여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_\_\_\_\_ (1982), “제주도 방언의 접속사 연구 -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한글*176, 서울 : 한글학회.
- \_\_\_\_\_ (1983),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마침법 연구,” *동대어문*4, 서울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_\_\_\_\_ (1983), “제주도 방언의 풀이씨의 이음법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송상조(1989), “제주도 방언의 파생 접미사 연구(II),” 국어국문학9, 부산 :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_\_\_\_\_ (1991),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박사학위 논문, 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_\_\_\_\_ (1992), “제주도 방언 ‘-ㅇ, -ㄴ’ 형태소에 관한 고찰,” 동남어문논집2, 동남어문학회.

양복순(2008), “『태백산맥』에 반영된 문학방언 연구”, 석사학위 논문, 광주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양연희(2009), “목월 시에 나타난 방언 연구”, 석사학위 논문, 청원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양용준(2003), “제주 방언에서 화행과 함축의 특성,” 언어과학연구25, 구미 : 언어과학회.

오창명(2000), “제주도 방언 연구 동향과 과제,” 탐라문화21, 제주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우창현(1995), “제주방언의 시상선어말 어미에 대하여,” 서강어문11, 서울 : 서강어문학회.

\_\_\_\_\_ (1997), “제주 방언의 시상범주에 대하여,” 서강어문13, 서울 : 서강어문학회.

\_\_\_\_\_ (1997), “제주방언의 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_\_\_\_\_ (1998), “濟州 方言의 樣相先語末語尾 ‘-ㄴ-’에 대하여,” 순천향어문논총5, 아산 : 순천향어문학회.

\_\_\_\_\_ (2001), “제주 방언 선어말어미 ‘-엇-’에 대하여,” 순천향어문논총7, 아산 : 순천향어문학회.

\_\_\_\_\_ (2002), “연구논문 : 제주방언 “-암시-“와 중앙어“-고 있-“과의 상관성 -제주 방언 “-암시-“를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3, 서울 : 시학과 언어학회.

\_\_\_\_\_ (2004), “제주 방언 “-아시-“의 문법화와 문법 의미,” 한국어학24, 서울 : 한국어학회.

\_\_\_\_\_ (2005), “제주 방언의 ‘-느-’에 대하여,” 형태론7, 서울 : 도서출판 박이정.

\_\_\_\_\_ (2007), “제주방언 보조용언의 문법 범주와 의미 해석,” 어문학97, 대구 : 한국어문학회.

\_\_\_\_\_ (2008), “일반논문: 제주방언 선어말어미의 의미 해석 문제 - “-암시-“, “-아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40, 경산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위평량(2002), “『토지』의 방언적 성격,” 한국언어문학49, 전주 : 한국언어학회.

유선희(2003), “백석 시 연구 : 방언사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주 :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석민(2006), “소설과 방언 그리고 텍스트 언어학,” 국어국문학142, 서울 : 국어국문학회.

이강식(1989), “제주도 방언의 존대어문법 고찰,” 청람어문교육2, 청원 : 청람어문학회.

이계영(1993), “현기영 소설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기세(1993), “현재적 삶과 문학의 역할 - 『순이 삼촌』, 또는 제주도 정신 -,” 한성어문학12, 서울 : 한성어문학회.

\_\_\_\_\_ (2001), “현기영 소설 연구 : 사회의식 표출양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명희(2008), “백석 시에 나타난 방언 시어의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 :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주미(2005),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 화인(火印)의 기억과 역사의식,” 현대소설연구26, 수원 : 한국현대소설학회.

이창훈(2003), “현기영 소설 연구 : ‘4.3’소재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태영(1997), “채만식 소설 『천하태평춘』에 나타난 방언의 특징,” 국어문학32, 전주 : 국어문학회.

\_\_\_\_\_ (2004),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의 기능,” 어문논총41, 대구 : 한국문학언어학총회.

이효상(2006), “제주 방언의 ‘-엄시-’에 대하여, 형태론8, 서울 : 도서출판 박이정.

전봉관(2000), “백석 시의 방언과 그 미학적 의미,” 한국학보26, 서울 : 일지사.

정문권, 이희영(2009), “현기영 소설의 휴머니즘 연구,” 인문논총26, 대전 :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정승철(1985),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 어미에 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회10, 서울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_\_\_\_\_ (1995), “제주도 방언의 파생접미사 - 몇 개의 재구형을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30, 서울 : 대동문화연구원.

\_\_\_\_\_ (199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애산학보20, 애산학회.

\_\_\_\_\_ (1998), “제주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새국어생활8,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_\_\_\_\_ (1999), “제주방언의 음조와 음조군,” 진단학보88, 서울 : 진단학회.

\_\_\_\_\_ (2000), “제주 방언의 음운론,” 탐라문화21, 제주 : 탐라문화연구소.

정영진(1983), “濟州方言의 終結語尾 研究,” 한국어문학연구18, 서울 : 동악어문학회.

정창영(2004), “시어의 전략적 의미와 미학 - 1930년대 시인들의 방언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53, 전주 : 한국언어문학회.

정홍섭(2010), “<탁류>의 방언과 북한어,” 한국현대문학연구31, 춘천 : 한국현대문학회.

조성문(2008), “산포이론에 의한 제주방언의 음운적 특성 분석,” 동북아 문화연구14, 부산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조일영(1994), “국어의 양태소의 의미 연구 : 시간관련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영균(1984), “濟州方言 動名詞 語尾의 統辭機能,” 국어학13, 서울 : 국어학회.

한영목(2003), “이문구 소설의 방언 연구 : 모음 현상을 중심으로,” 어문연구43, 대전 : 어문연구학회.

\_\_\_\_\_ (2005), “이문구 소설어와 충남 방언,” 우리말 글35, 경북 : 우리말글학회.

\_\_\_\_\_ (2008), “이문구 소설에 나타나는 조사 연구,” 한국언어문학67, 전주 : 한국언어문학회.

허기추(1988), “제주도 방언의 자리토씨에 관한 연구 : 표준어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청원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허형만(2004), “김영랑 시와 남도방언,” 한국시학연구10, 서울 : 한국시학회.

현기영(1993), “내 소설의 모태는 4·3항쟁,” 역사비평22, 서울 : 역사문제연구소.

현우중(1985), “제주도 방언 「·」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 건국대학

교 대학원.

\_\_\_\_\_(1988), “제주도 방언 「·」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탐라문화7, 제주 : 탐라문화연구소.

\_\_\_\_\_(1992), “제주 방언 홀소리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현평효(1964), “제주도방언의 단모음설정,” 한국언어문학2, 전주 : 한국언어문학회.

\_\_\_\_\_(1970), “제주도 방언의 모음체계,” 국문학보3, 제주 : 국어국문학회.

\_\_\_\_\_(1974), “濟州道方言의 定動詞語尾 研究”, 박사학위 논문,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_\_\_\_\_(1977), “제주도 방언 존대법의 특징,” 새국어생활1,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_\_\_\_\_(1977), “제주도방언의 ‘-저, -주’어미에 대하여,” 어문논집19, 서울 : 안암어문학회.

\_\_\_\_\_(1991), “제주도 방언 존대법의 특징,” 새국어생활3, 서울 : 국립국어연구원.

홍종립(1976), “제주도방언의 선어말어미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에 대하여,” 선청어문7, 서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_\_\_\_\_(1981), “제주도방언의 선어말어미 ‘-크-’에 대하여,” 선청어문11, 서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_\_\_\_\_(1983), “제주도방언의 소위 회상법형태에 대하여,” 국어교육44, 서울 : 한국국어교육연구회.

\_\_\_\_\_(1991),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점주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_\_\_\_\_(1994), “제주방언의 평서법어미에 대한 고찰(1),” 선청어문22, 서울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_\_\_\_\_(1998), “제주방언의 ‘ㅎ’末音 名詞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19, 제주 : 탐라문화연구소.

## ABSTRACT

A Study on Jeju Dialects of Novels written by  
Hyeon, Gi-Young : Centered on Sentence Ending

*Jeong, Soo-Bi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ung, Nak-Soo, Ph. D. in Literature

Within the individual language boundary, the each group, which shows the difference each other in the aspects of phoneme, morph, syntax, and meaning, comes into existence, and such is called 'dialects'. The dialects researched in this paper only refer to a regional dialect.

In general, the dialects are thought as a low grade language, so it is abased in some cases. But if we looked at a very wide range of dialects, the worth of linguistic researches can be found as much more as standard language. For such a reason, linguists' researches on the dialects have been continued on steadily long before, recently, their researches have been extended



the scope to the dialects appeared in poems and novels. Especially, the researches on the dialects appeared in novels are the proces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works itself in detail, also such researches make it possible to observe not the features of the dialects restricted in the pre-existing fragmentary situation setting but the aspects of the dialects uttered in the concrete situation.

Meanwhile, many researches on the literature dialects have been achieved, but singly researches on the understanding between Jeju dialects and literature have not been clearly performed. Considering that themes of the works, so-called 'Jeju literature' are connected with 'Jeju 4·3 event', it can be known that relations between Jeju dialects and novels are more interlocked than relations between other regional dialects and novels.

The novel works using Jeju dialects have been appeared steadily since the 1950s. Hyeon Gi-Young among such works was a figure who made the work activity, taking the specific background of Jeju island as the root of literature, insomuch as he revealed his own parent novel was 'Jeju 4·3 struggling'. Paying attention to the point that he as a native writer from Jeju, it was thought that the consideration on the aspects of Jeju dialects appeared in Hyeon Gi-Yong's novel was significant. Among his works, full-length novels using Jeju dialects, *One Spoon on the Land*, *The Wind-blowing Island*, and short-length novels using them, *The Suni's Uncle*, *The Story of Sea Dragon*, *The Road*, *The Lost Days*, *The Returning Ship*, *Gods in Thirsty*, *The Holy Lifetime*, *An Crow on the Floor of Doryeong*, *The Aspalt* were performed an analysis, and the results from such an analysis were as follows.

The Jeju dialects expressed in his novels could be checked out overally in the aspects of phoneme, morph, and syntax, but among them especi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alects in the ending form in conversational sentences were checked out to be realized remarkably. Thus, in this paper the research was proceeded on, focusing mainly on the ending form in Jeju dialects.

According with listener's qualification viewed from speaker's stance, by classifying expressions into honorific forms(존대 표현), plain forms(평대 표현), and familiar forms(하대 표현), the declarative mood(서술법), the interrogative mood(의문법), the imperative mood(명령법), and the propositive mood(칭유법) were analyzed in each of such classified forms.

To suggest results from the above analyzing was as follows.

First, honorific forms, which had a qualification of [+heightening 높임] in his novels, were [-우다], [-ㅁ네] in the declarative mood, [-우파], [-ㅁ네까], [-ㅁ데가] in the interrogative mood, [-ㅁ서] in the imperative mood, and [-ㅁ시다] in the propositive mood. The ending form [-우다] had a qualification of [+heightening 높임], which made it feel the characteristics of Jeju dialects best in the form most widely used in his novels. Also, it could be checked out that the ending form [-ㅁ네다] was an expression which had a higher formality than [+heightening 높임] or [-우다]. The ending form [-파], which had a qualification of [+heightening 높임] in the interrogative mood, was realized in the variational forms of /-까, /-과, and showed a remarkable frequency in comparison of other interrogative ending forms. This ending forms could be showed along with [-우-], [-리-], [-네], [-데], and only the fixed forms [-우파], [-ㅁ네까], [-ㅁ데가] were showed in novels. As the informal expression, [-우파] was most showed, and [-ㅁ네까] was used in formal expressions when raising a prayer to God, and when making a speech. The form [-ㅁ데가] means 'recollection' or 'reminiscence'. The form [-서], which had a qualification of [+heightening 높임] in the imperative mood, had a function of command only in the form of anteceded [-ㅁ-]. Unlike Jeju dialects forms originally known, the instance that the morpheme [-ㅁ시-], which enhanced the subject of action was used, was often showed. This revealed young speakers' real sound in current Jeju dialects. The form [-ㅁ시다] existed in the propositive mood, it seemed to be come from other dialects.

Second, familiar forms were used when the relation between a speaker and a listener was familiar as to be without the formal manner of heightening and dropping the honor. In his novels, mainly the ending forms [-아] and [-쥬] were used as the declarative mood in plain forms of Jeju dialects. The ending form [-아] had variational forms /-어/, /-여/, etc. appeared in the phonological condition, the form /-여/ was mainly used in novels. The ending form [-쥬] showed a qualification of [+heightening 높임], and it was a informal expression. When a speaker was younger than a listener, the form of [-ㅁ쥬] was realized. As an alternate allomorph, [-쥬] was sho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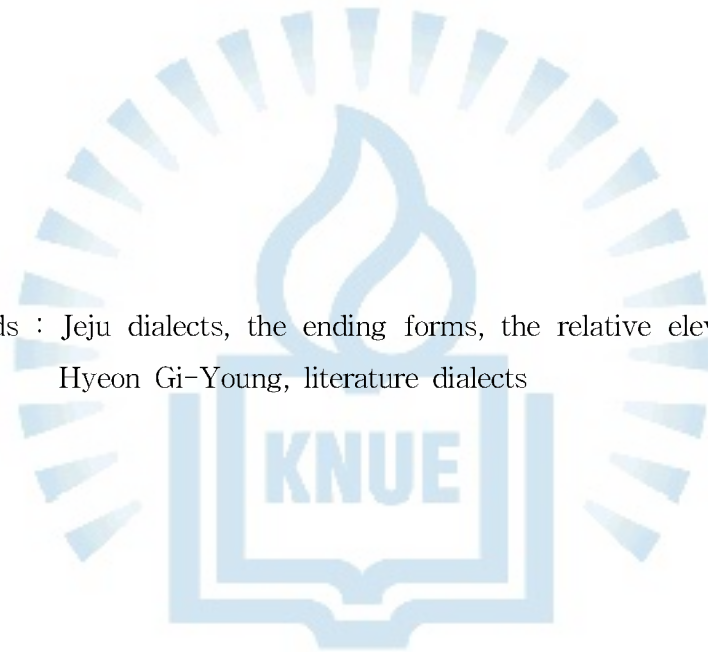
Mainly the ending forms [-가] and [-고] were showed as the interrogative mood. Both of the closing suffixes [-가] and [-고] were the suffixes used in the comfortable relation, without the meaning of special heightening and dropping the honor. If the form [-가] was used in both of the explanative interrogative sentence and the judgement sentence, the form [-고] was only used in the explanative interrogative. The form [-아] existed in both of the imperative mood and the propositive mood.

Third, familiar forms were expressions used when a listener's qualification was [+heightening 높임]. The declarative mood in his novels, the forms [-저] and [-라] were used. The ending form [-저] was [+heightening 높임], and with [-우다] it accentuate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dialects, appearing together with the tense-aspect head tail suffix(시상선어말어미) of Jeju dialects. The form [-라] was mainly appeared in the forms of [-이라] and [-거라] when a speaker made an assertion filled with a proclamation and a conviction. The forms [-냐] and [-리] were remarkably appeared in the interrogative mood. The form /-니/, which was a variational form of the ending form [-냐] having the [+heightening 높임], showed an distinctive aspect. It was only appeared always with accompanying the interrogative, and it was appeared only when connected with /-아시-/ , /-암시/ of Jeju dialects such as (in Korean) '어디 감시니?' , '어디이시니' . The form [-리] was seen mainly

when answering one's own question. The form [-라] in the imperative mood and the form [-자] in the propositive mood were not showed the noticeable characteristics of Jeju dialects alone.

As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dialects existing in Hyeon Gi-young's novels were analyzed in the sight of linguistics. Rather the discussions were in lack, but they were expected as a basic step to understand Jeju dialects, and this paper was concluded.

\* Key Words : Jeju dialects, the ending forms, the relative elevational mood, Hyeon Gi-Young, literature dialect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2.